

## 島嶼와 島嶼民

—馬羅島—

李 起 旭 \*

### I. 서 론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해역에 수많은 섬을 포함하고 있다. 내무부 발간의 「도서요람」(島嶼要覽, 1983)에 따르면 전국의 총 도서수는 3,279개이며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113,724가구에 556,398명(제주도 본도 제외)이고 도서 면적은 전국 총면적 98,966 $km^2$ 의 2.5%에 이르는 2,455 $km^2$ , 이 중 유인도의 면적은 2,343 $km^2$ 로 전체 도서 면적의 95.4%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83년도 통계에서 전국 인구 4,000만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통계에서 제외된 제주 본도의 면적과 인구를 감안한다면 한반도 내에서의 도서지

---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전임강사

역은 중요한 인간의 서식 환경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1983 년도의 상황을 1980 년도의 자료 (「도서 현황」, 내무부)와 비교해 볼 때 유인도서수는 무려 17개나, 그리고 인구는 7,075명이 감소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도서 환경 뿐만 아니라 도서민의 생활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의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서 환경의 특성과 도서민의 생활유형에 대한 연구는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마라도를 조사지로 선택하여 이 곳의 특수한 환경과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며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상을 총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도서민의 생활상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기술 방식(記述方式)은 어디까지나 민족지적이다. 특히 문화현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생태인류학의 기술 방식에 따라 환경과 환경의 잇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마라도민의 생활상을 총체적으로 접근(holistic approach)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지의 기술에는 도서민의 생활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수정이라는 또 하나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물론 소수의 인류학자들(한상복, 1977; 전경수, 1984)이 도서민에 관심을 갖고, 심층적인 현지 조사를 통해 도서 지역에서 관행되는 상이한 관습들이 고립된 환경에 적응하는 도서민의 적응전략임을 지적하고 있지만 아직도 도서민의 생활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서민의 생활은 “낙후성”과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 원인을 “전근대적인 공동체적 생활 양식을 탈피하지 못하는데”에서 찾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공동체적 생활 양식이 갖는 불가피한 사정이나 혹은 특수한 도서환경에서 도서민의 생활 양식이 모든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쉬운 결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도서민의 생활 양상은 다양한 도서 환경의 특성과 주민들의 행위유형과의 상관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이

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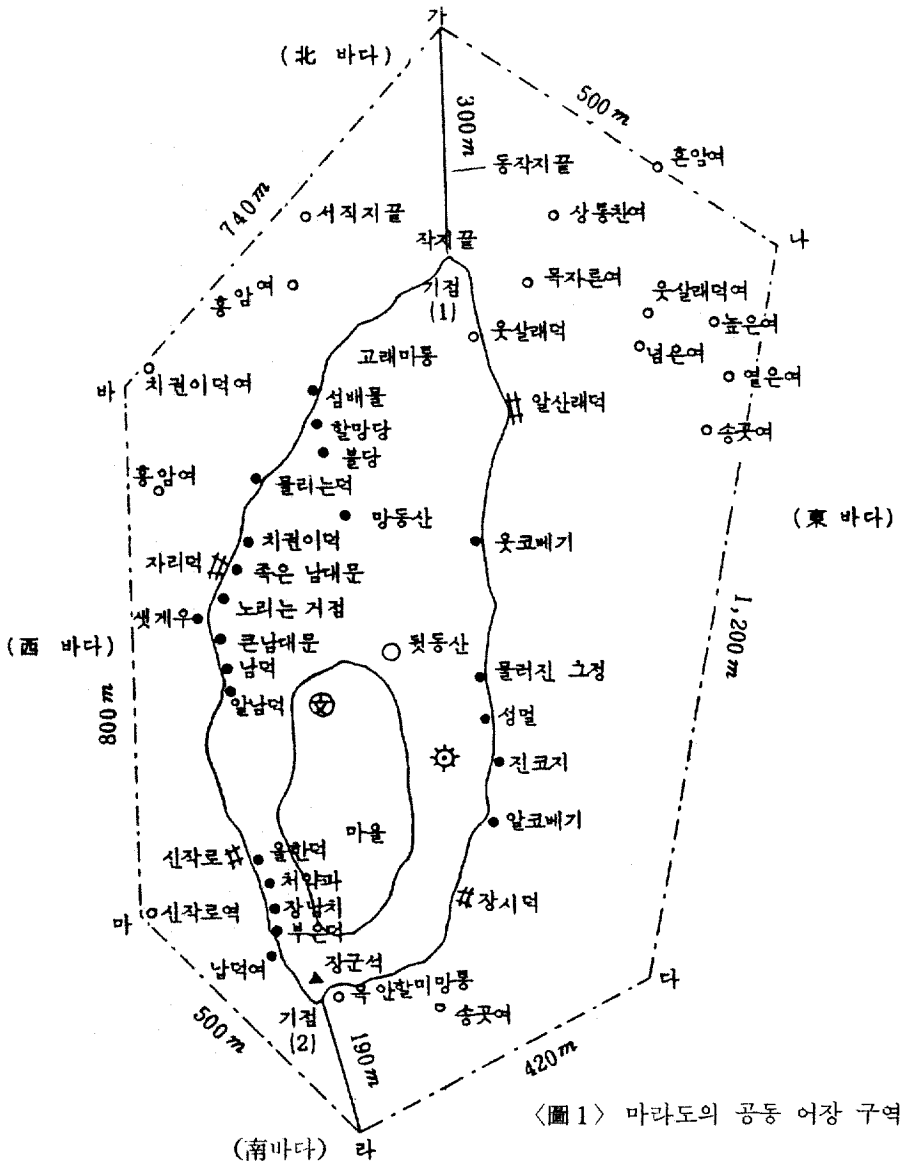
본고의 자료는 문헌 조사와 현지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것이다. 현지 조사는 1980년도와 1981년도에 각각 동계 방학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모두 40일간 거주하며 실시되었다. 1981년도 조사 당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팀이 가파도와 마라도의 지질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도 조사자를 통해 입수하여 도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또한 제주도 연구회 제 17차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당시 연세대학교 박양생교수의 “해녀의 생리학적 연구”라는 주제의 발표 내용과 1966년도에 마라도를 방문, 이 곳의 향약 체계를 조사 기록한 성균관대학교의 고상용 교수의 논문은 모두 중요한 보충자료로 이용되었고 이 때 조사된 향약의 내용은 부록에 재수록하였다.

조사 자료는 일차적으로 1980년도 제주도 연구회 제 13차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되었고 1981년도 재조사에서 보충된 자료와 더불어 인류학 논집 제 7집(서울대 인류학연구회, 1984)에 논문의 자료로 쓰였는데 본고는 이 논문 중 민족지의 부분을 재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 II. 환 경

### 1. 지 형

마라도는 한반도 최남단인 동경 126도 16분, 북위 33도 6분에 위치하여 제주도 서남단의 모슬포와는 11 km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가파도와는 6 km나 남쪽으로 떨어져 있다. 이 섬은 총면적이 0.3 km<sup>2</sup>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의 고도로서 해저 화산 활동의 결과로 용암이 분출하여 해수면 위로 솟아 올라 굳어져 형성되었다. 그래서 섬 전체가 거대한 현무암석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암석은 해저에도 깔려 있어서 이 지역의 해안은 패류, 해조류, 연체류 등 수산물의 최적 서식지를 이루게 한다.



〈圖 1〉 마라도의 공동 어장 구역

섬의 동쪽 해안은 태평양의 거센 파랑에 끊임없이 침식되어서 이 곳 사람들이 “2정”이라고 부르는 수직 절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높이가 39m에 이른다. 이와 같은 낭떠러지는 다시 서쪽 해안에도 높이 20~30m로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과 북쪽 해안에서만 지면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낮아져 해수면과 맞닿고 있다. 이 곳 역시 암석이 불규칙하게 깔려 있어서 선박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험난한 지형은 천연적인 것은 물론 인공적인 항구 시설도 불가능케 하여 주민들의 생업에 있어서나 외부 지역과의 교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장애에 대비해서 도서 내에는 4개소의 선착장이 지정되어 있어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배의 정박이 가능한 곳으로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다. <圖1>에 표시된 것과 같이 섬 동남, 동북쪽 해안에 각각 장시덕, 살래덕 그리고 서남, 서북쪽 해안에 각각 신작로, 자리덕의 간이 선착장이 시설되어 있는데 모두 수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한 장소이므로 신작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소는 계단을 오르내려야하는 가파른 곳으로 통행에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 2. 기 후

마라도의 기후는 남지나해로부터 흘러오는 난류의 영향을 받아 해양성기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곳 등대 직원들이 집계한 81년도 기온 및 수온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최저 기온은 2°C, 최고 기온은 29°C로써 연중 영하의 날씨가나 30°C를 넘는 혹서의 날씨가 볼 수 없는 지역이다. 수온의 경우도 부산 지방은 연중 10~25°C의 폭으로 계절에 따라 상이한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 곳은 12.8~26°C로 겨울철의 최저 수온이 부산 지역보다 무려 2.8°C가 높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평상시 겨울철의 수온도 14.5°C를 기록하고 있다. 이 곳 해녀들은 사시절 바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물 속이 오히려 따뜻하고 아늑하다고 한다. 이는 지상 기온이 2°C로서 강풍과 더불어

눈보라가 치는 날의 해수온은  $12.8^{\circ}\text{C}$ 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겨울철에는 지상에서 보다는 해수에서의 체감 온도가 더 높은 데에 기인한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에 제약이 되는 기후 요인으로는 바람과 한발 현상을 들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제주도 일일이 바람이 심한 지역인데, 마라도 일대는 제주도 전역에서도 가장 바람이 심한 지역이다. 특히 갑작스런 날씨의 변화와 더불어 불어오는 돌풍은 주민들에게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생업에까지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바람을 세분하고 기후의 변동에 민감히 반응하며 바람에 의한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마을을 기준으로 동, 서, 남, 북에서 부는 바람을 각각 셋바람, 갈바람, 마파람, 하늬바람으로, 그리고 남쪽에서 부는 마파람은 다시 동서 마파람으로 구분되고 북풍인 하늬바람은 서하늬, 높하늬(북동풍)로 구분된다. 급작스럽게 부는 돌풍외에도 연중 수 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태풍은 거의 모두 이 섬에 영향을 미쳐 도내 간이 선착장 시설을 유실케하는 등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또한 11월 하순부터 부는 북서계절풍은 이듬해 3월까지 계속 불어 수산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 활동에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섬의 개척 당시부터 이 곳을 스치는 강풍은 토양을 침식하고 해수를 날라 토질을 척박하게 하여 농업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해 왔다.

두번째 제약 요소인 한발은 생활에 필수적인 물공급에 장애 요인이 된다. 현무암으로 형성된 섬의 지질 구조로 말미암아 이 곳은 빗물을 지하에 오래 저장하지 못하여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인데, 한발이 있을 때에는 섬내에 파여진 세 곳의 샘물이 모두 메말라 버린다. 한발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대에 마련된 대형 물탱크의 물을 이용하여 견딜 수 있으나 장기간에 걸칠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이 불가피하게 된다. 주민들이 식수난에 처하게 되면 우선 군(郡) 당국이 나서서 군선 천지호를 동원하여 모슬포의 식수를 실어 날라 주

민들의 구조작업에 나서며 이 때에는 가파도나 모슬포에 살고 있는 친족들 중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마라도에 거주하는 친족들을 돕고자 그들의 배를 동원한다.

### 3. 동·식물군

원래 마라도는 오랜 세월에 걸쳐 자생해 온 숲이 전체의 섬을 뒤덮고 있었다. 전설에 전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인근 주민들이 망종이 지나 물살이 약해지고 기후의 변화가 완화되면 이 섬으로 건너와 무성한 나무를 베어가거나 해산물을 채취해가곤 했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주도 인근의 여러 무인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래의 마라도는 동백나무 등 사철나무와 뱀이나 개구리 등도 서식할 수 있었던 비옥한 섬으로 추측된다.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숲은 해풍이나 해수에 대한 자체의 저항력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도서 생태계의 균형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균형 상태는 사람들이 생태계의 일원으로 끼어들므로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주민들은 원래 모슬포에서 전작농작물을 주식량으로 재배하며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수산자원을 이용하는등 복합적인 생계 활동을 행하고 있었다. 이주민들의 이주 목적은 그들의 주식인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경지 확보에 있었다. 경지 확보를 위해서 이주민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숲 전체에 불을 놓아 숲을 완전히 제거한 후 탄 자리를 일구어 과거의 숲을 농지로 바꾸어 놓았다. 이와 같은 급격한 생태계의 파괴는 섬을 불모화하고 도서내에 서식해 온 동식물군에도 커다란 변화를 주게 되었다. 기존 도서 생태계는 인위적인 힘에 의한 급격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토질층 자체까지도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숲이 제거되자 숲의보호로 비옥하던 토양이 풍우 등 기후의 작용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다. 이 곳의 토양은 화산재나 암석이 부식하여 형성된 관계로 그 층이 얇고 또 전성의 토질이었으므로 일년에도 수 차베 스쳐가는 태풍이나, 계절에 따

라 수없이 발생하는 강한 계절풍 또는 강우에 침식이 거듭되어 그 층이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개척 초기 농경이 가능했던 토지는 서서히 불모지로 변하여 현재 농경지는 섬 남단에만 한정되고 있다. 과거에 숲이 우거졌던 곳이나 경작지였던 곳이 현재는 락, 개솔새, 기름새, 역새, 잔디, 자골, 매듭풀, 싸리, 쑥, 제비쑥, 엉겅퀴, 병풀, 꼴풀 등 제주 본도의 초지에 자생하는 야생 식물군이 자라게 되었으며 수목류는 1.2ha의 임야지에 한정되고 있다. 그나마 임야지의 나무들은 모두 조림 사업으로 심어진 것들로서 70년도에 소나무, 76년도에 심은 돈나무, 구름비나무, 사철나무 등인데 현재까지 겨우 1m 정도 자라서 겨우 해풍에 견디고 있을 뿐이다. 조림지 이외에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황량한 섬으로 변모되어 있다. 그래서 요즘 뱀이나 개구리는 찾아볼 수 없으며 봄철에 종달새의 서식처가 되고 그 밖에 물새들만이 찾아오고 있을 뿐이다.

섬 주변 해역에는 주민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생계의 근원이 되는 수산자원이 산재해 있다.

이곳은 검은 현무암석이 해저를 뒤덮고 있어 각종해산물의 최적 서식지가 되고 있다. 이곳에 서식하는 해산물은 대체로 어류, 패류, 연체류 그리고 해조류로 구분되는데 주변 200~300m 해역(〈도1〉참고)은 공동어장으로 구분되어 타지역 사람들의 조업이 금지되어 있고 주민들만이 이들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제주도 연근해에서 조사된 자료에서 밝혀졌듯이 어류는 근300여종에 가까운 많은 종류가 서식하고 있다. 인근해는 해류의 교차가 빈번한 지역이라 멸치, 고등어, 옥돔, 흑돔 등의 어장이 분포되어 있는 이른바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다. 주로 잡히는 어류에는 고등어, 멸치, 농성어, 복어, 방어, 참돔, 흑돔, 가오리, 흑돔, 자돔, 갈치 등(1981년 수산업협동조합 모슬포지점 자료)을 들 수 있다. 패류는 전복, 소라가 주종을 이루며 대합, 피조개 등이 소량으로 잡힌다. 해조류로는 미역, 김, 툫, 다시마, 파래, 청각 등이 채



취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밖의 해산물로는 연체류의 오징어, 문어 그리고 극피동물에 속하는 성게류가 서식하여 주민들의 식단에 오르고 있다.

### Ⅲ. 마을의 구성

#### 1. 역 사

개척 이전의 마라도는 금섬으로 불리워지는 섬으로 인근 지역사람들이 신비스럽게 여기며 접근을 꺼리던 섬이었다. 그 당시 대정골(현 모슬포)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망종 이전에 금섬에 이르면 흉년이 온다’ 라는 말은 마라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섬은 울창한 원시림으로 뒤덮여 있었고 해안에는 해산물이 풍성하였으나 주변 해역이 파도가 높고 기후의 변화가 심하여 당시 교통 수단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망종이 지나면 불규칙하게 변화하던 날씨가 풀리고 따라서 해상에서의 위험도 덜어진다. 이 때에는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섬에 상륙하여 나무를 베어간다는지 해산물을 채취해가는 일이 있었다. 천재 할망당의 당신(堂神)으로 지정되어 마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섬기고 있는 처녀도 나무를 베러 온 사람을 따라와 해산물을 채취해 가려다가 최초로 섬에서 희생된 사람이다.

오랫동안 무인도로 방치되어 오던 섬에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100여년전인 1883년부터이다. 모슬포읍 사무소의 소장 자료에 의하면 당시 대정골에 거주하던 김씨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여 생활 능력을 상실하자 친척들이 모여 상의한 후 고을 원님에게 섬의 개척을 진의한 결과, 이듬해 제주목사 심현택이 공식적으로 인가하여 이주가 가능해졌다. 김씨가 마라도를 개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슬포에 거주하던 나씨, 이씨, 강씨 등이 지원하여 나섬으로써 모두 6세대가 친척들의 도움으로 마라도에 이주하였다. 그들은 주식을 농산물에 의

존하고 있었으므로 이주의 목적이 농경지를 확보하는 데에 있었다. 그들은 주로 보리나 조, 콩 등 전작 농작물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식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섬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농경을 위해서는 우선 경작지가 있어야 했다. 이주민들은 농경에 필요한 경작지를 마련하고자 숲을 태워 없애고 탄 자리를 일구어 농지로 바꾸어 나갔다. 이곳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고향을 떠나온 이주민 중의 한 사람이 달밤에 통소를 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뱀이 몰려왔다고 한다. 놀란 이주민은 섬 내의 많은 뱀을 제거하기 위하여 숲을 태워야 했는데 타기 시작한 불길은 석달 열흘이 지나서야 불길이 멎었고 이 때 뱀들은 바다를 헤엄쳐 제주도의 정의 지방(현 토산)으로 건너갔다고 한다. 이렇게 개척된 농경지에 농사가 시작되었고 수년동안은 경작하는 작물마다 풍작을 이루어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1915년 日인들이 이 곳에 등대를 건설하기 위해 入島하였으며 이들이 입도하자 정착민은 일시 섬을 비우고 떠났으나 등대가 완성되어 일인들이 몰려가자 다시 건너와 살게 되었다. 해방 후 행정 구역상으로 대정읍 가파리 소속의 1개반으로 편성되어 오다가 1981년 4월부터 서귀포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가파도로부터 분리되고 마라리로 승격되었으며 반편성도 1개반에서 2개반으로 나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 2. 인 구

1981년 조사 당시 마라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25가구에 남자 66명, 여자 42명으로 모두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총인구는 다시 상주 인구와 비상주 인구로 구분되는데 상주 인구는 도내에 있는 자원의 소유권 및 이용권을 갖고 있는 원주민들이며 비상주 인구는 도내에 직무차 나와 잠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부인들을 지칭한다. 비상주 인구는 5가구에 남자 20명, 여자 6명으로 모두 26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도서경비대, 등대 직원 그리고 분교의 임직원들로서 등대

직원을 제하고는 모두 연고지에 가족을 두고 와 소속된 직장에 근무하는 남자 인구가 대부분이다. 상주 인구는 토지 및 인근해의 해저 자원에 대한 이용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전입해 오려는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영입을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도내의 자치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에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주민들이다. 원주민의 상주 인구는 20 가구에 남자 46명, 여자 36명으로 모두 82명이다. 직업별로 보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가 6명이고 각 가정에서 생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녀가 18명이다. 기타 분교에 강사로 나가는 여자 1명, 그리고 등대 직원으로 남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두 가정이 가게를 차리고 여기에 남녀 각각 1명씩 가게 운영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구는 자연자원에 의존하여 그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상주 인구 20 가구 중 2 가구를 제외하고는 18 가구가 모두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당 평균 4.1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중고생을 포함한 12명의 학생과 젊은 남자들이 가파도나 모슬포에서 고깃배를 타거나 그밖의 일자리를 얻어 섬을 떠나감으로 평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5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마라도 내의 거주 인구 수의 조절은 이주로 인해 타지역으로 전입해 나가므로 항상 일정한 수로 유지되고 있다. 인구 이동의 원인은 젊은 이들의 마땅한 일자리가 島内に 없으므로 대부분이 외지로 나가 그 곳에서 일자리를 얻고 정착하는 데 있다. 특히 도내의 자원이 빈약하고 섬이 험난하여 남성들의 주된 생계 활동인 고기잡이가 어려워 가능하면 외지로 나가고 있으며 이 곳의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을 받게하여 타지역으로 나가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다. 인근 해안의 자원에만 의존하여 생활하는 이들은 자원의 한계를 의식하고 가급적이면 자원을 이용하는 인원을 줄이려는 시도가 다각도로 취해지고 있다. 까다로운 전입 절차, 그리고 여자가 외지의 남자와 혼인할 경우, 혼인하는

그 날로 도서내의 모든 자원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권을 상실하게 되는 규범 등은 도서내의 거주 인구를 줄이려는 전략의 예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련된 향약 체계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 3. 생태적 적응

마라도의 생태적 특성으로는 험난한 지형, 해수의 장애에 의한 외부 지역과의 고립, 기후의 제약, 그리고 한정된 자원 등을 들 수 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이와같은 여러가지 제약요인들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우선 지형적 장애의 극복은 일차적으로 외부와의 교신이나 인근의 황금 어장을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단계가 된다. 외부 지역과의 교통은 앞서 언급했듯이 도서내 사면에 지정된 간이 선착장 시설을 가설 이용하므로써 바람의 방향에 따라 적절한 곳에 배를 정박하여 이 곳으로 드나들므로 가파른 곳을 기어 오르내리는 위험이 따르지만 교통을 위한 지형적 장애는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 개척 초기부터 1950년대 까지 주민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조그만 범선으로 모슬포까지 통행해야 했으므로 가파도와 마라도 사이 그리고 모슬포와 가파도 사이에 형성된 급류대를 무사히 건너려면 날씨가 맑고 파도가 잔잔한 날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1~2개월씩 외부 지역과 교신이 두절된 채 고립되어 지내야만 하였다. 현대식 교통 수단인 기관에 의해 움직이는 선박이 통행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마라도(10톤)를 하사하여 이 배가 취항하면서인데 그나마 선원들의 급료와 기름값등의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개인에게 임대하고 평소에는 어로 작업에 이용되다가 보름에 한 번씩 주민들의 교통을 돕도록 하였으나 1980년 조업 중 태풍에 난파되고 말았다. 현재는 가파호(23.5톤, 100마력)와 세일호(19.2톤, 146마력)의 두 척이 운행되어 가파호는 화, 금 그리고 세일호는 토요일에 마라도를 경유하

고 모항인 모슬포로 되돌아오고 있다. 외부 지역과의 통신 시설은 1977년 자가 발전 시설을 갖추어 전기가 각 가정에 공급되면서 분교에 무선 전화가 설치되어 서귀포시의 중계로 하루 세 차례 외부지역과의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전의 통신 수단으로는 횃불을 올려 인근 사람들의 구조를 요청하는 방법을 이용해 왔다. 마을에 긴급하거나 위태로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섬 동쪽이나 서쪽 언덕에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을 올려서 위급함을 알려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섬 동쪽 언덕에 연기나 횃불이 오를 경우에는 나씨의, 서쪽일 경우에는 김씨의 친척들이 가파도나 모슬포에서 배를 타고 와 긴급한 일을 처리해 왔다. 횃불은 주로 주민들중에 급환이 발생하거나 절벽을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위급한 상황을 맞을 때 이용되던 교통신호 수단인데 오늘날에도 통화가 어려울 때에는 간간히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민들이 대처해 나가기 어려운 돌풍에 대한 해석은 독특하다. 규칙적인 바람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세분하고 단단히 대비하고 있지만 돌풍은 갑작스럽게 불어오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고 많은 피해를 준다. 그래서 돌풍의 원인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섬 남단에 한반도의 최남단이라고 명기된 비문이 세워진 곳에 장군석 혹은 신사바위라고 불리우는 3~4m 가량의 바위가 서있다. 평평한 해변가에 유독 이 바위만이 높이 서 있으므로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은 보다 높은 곳에서 바다를 조망하고자 이 바위를 오르게 된다. 그런데 이 바위는 일제 시대에 등대를 세우기 위해 찾아 왔던 사람들이 신성시하여 조석으로 참배를 드리던 곳으로 신사바위라 불리웠는데 일인이 물러간 후에도 주민들 역시 이 바위를 신성시하여 장군석이라 명명하고 접근을 금하고 있다. 이는 이 바위가 천신이 지상으로 강림할 때의 길목이므로 사람이 접근하면 신성한 곳이 더럽혀진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바람이 갑작스럽게 불어올 경우 주민들은 누군가가 장군석에 올라갔기 때문이라 믿으며, 이는 신이 노하여 금기를 어긴 사람을 벌하기 위해 돌풍을

내리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곳에 오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정을 소상히 아는 주민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찾아드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무지한 행동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믿는다. 바위에 관련된 금기 사항에는 외부 집단에 대한 강한 배타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끝으로 기후의 제약에 대한 주민들의 적응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후의 제요소 중에 한발은 도서 환경에서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물의 부족 현상을 야기시킨다. 특히 매년 한발시마다 균선을 동원하여 식수난을 구제하는데 상당한 경비를 들여야하는 郡 당국은 가뭄 피해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시도된 사업이 지붕 개량 사업이다. 1976년도 군에서 각 가정에 물탱크를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지붕 개량에 드는 경비를 무상으로 지급하자 모든 주민들이 지붕 개량 사업에 호응하였다. 지금은 스텝 지붕 밑 추녀에 물받이 시설을 하고 여기에서 고인 빗물을 긴 파이프를 통해 마당 한 구석에 파놓은 시멘트 물탱크(2m깊이 정도)에 운반하고 저장해 둠으로써 식수 및 일상용수를 자급자족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주거시설인 초가지붕은 한발시는 물론 일상시의 생활용수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스텝 지붕으로 개량되어 지금은 겨우 한 채의 초가지집만이 남아있어 과거의 가옥형태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전통적인 초가지집은 제주도 전 지역의 공통적인 주거 시설의 형태로 통나무를 다듬어 사방으로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포를 엮어 양쪽으로 상모대공판을 세우고 그 위로 이것을 잇는 상모루를 엮어 집의 골격을 이루게 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타 지역의 주택 구조와 차이가 없으나 사면 외장에 돌담을 쌓고 돌담 틈바구니를 흙으로 바르는 점과 추녀 마루선이 보이지 않는 “반난형의 낮은 돔형의 지붕”(장보웅, 1981:141)과 지붕을 덮는 재료로 띠를 사용하는 점, 그리고 지붕을 매는 굵고 단단한 줄 등 육지부의 가옥 형태와 판이한 차이를 이루고 있다. 특히 낮은 돔형의 지붕은

그물처럼 가로와 세로로 촘촘히 매놓은 단단한 줄로 인해 강풍에 대비한 가옥 형태임을 드러내고 있다. 마을의 전 가옥은 대부분이 남향으로 향하여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가장 혹독한 북풍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가옥의 내부 구조는 모두 세칸형의 집으로 직사각형의 평면을 마치 3등분하여 나눈 형태로 중앙부에는 마루가 있고 양쪽 공간은 다시 2등분되어 한 쪽은 부엌과 방으로, 다른 한 쪽은 방과 고풍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옥의 내부 공간만으로도 핵가족의 생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바깥채를 갖고 있는 가옥은 드무나 대부분 소의양간 막사를 지니고 있다.

#### IV. 경제생활

인간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서식처의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이 때의 적응이란 인간이 서식처의 특성에 맞는 생계의 방법을 획득함으로써 의·식·주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나가는 것을 뜻하게 된다. 마라도 주민들은 해수의 장애에 의한 고립으로 타지역에서의 조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의 대부분을 도서내의 자연 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최소 자원 이용에 나타나는 경제적 활동의 특성을 다룸으로써 자원에의 접근을 규제하는 관습이나 이러한 자원에 노동력을 투입함으로써 필요한 물자를 얻어내거나 얻어진 물자를 분배, 소비하는 관습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형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 1. 분업

주민들의 지배적인 분업 방식은 性別分業이다. 작업 방식이 단순하여 주된 생계 활동에서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연령의 차에 의한 일의 구분은 세심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일을 감당할 체력과 기본적인 기술을 지니고 있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원을 이용하는 작업

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곳의 분업은 가정을 중심으로한 생계 활동에서 가정 내의 남녀가 서로 상이한 일을 분담 처리하는 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가. 남성의 역할

도서의 생태적 특성에 의해서 이곳 남성들은 그들의 중요한 야외에서의 일터를 상실하고 있다. 농경에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은 해수의 범람이나 토양의 침식 등에 의해 농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을 잃게 되었으며 험난한 지형적 장애로 인근해를 이용하는 어업에서도 그들의 활동이 지극히 저조하게 되었다. 근래에 이르러 어선이 1척 늘어 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이 많아졌지만 전체 남성 48명 중 6명에 지나지 않아 어로에 의한 소득은 지극히 낮은 편이다. 그 밖에 야외에서의 일은 소를 돌보는 일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소들이 방목장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방목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도 남성의 역할이 크게 중요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 남아있게 되는 남성들은 물질나간 아내를 대신하여 가사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게 된다. 가정 내에서 남성들이 담당하는 일로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 방목 시기가 끝나고 목장에서 돌아온 소나 집에서 기르는 돼지에 사료나 물을 먹이는 일, 그리고 가끔 일터에서 늦게 돌아오는 아내를 대신하여 저녁을 준비하는 일 등이다. 가정에서 요구되는 생활 필수품은 모두 모슬포에서 구입하게 되므로 빈번히 드나들 수 없는 이 곳의 교통 사정과 여성들이 잠수작업으로 여가를 낼 수 없으므로 인하여 한가한 남성이 의지로 드나들고 있다. 남성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동료들과의 교제로 소일한다. 모여서는 심심풀이로 화투 놀음을 하거나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을 마시고는 취중에 사소한 언쟁으로 다투어 마을 내에 불화가 빈번하게 되므로, 남성들의 과음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성들의 모임인 해녀회 회원들이 1975년에 도내에서 주류판매를 금지키로 결정하였다. 이 후로 이 주류 판매



금지 규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곳의 연로자인 나찌 노인이 젊은이들이 서로 시알(시기)하기를 좋아해서 마을 일을 게을리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공적인 일을 계획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남성들 사이에 의사결정이 용이하지 않아 섬을 개발하려는 자체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마라도가 한반도 최남단 지역이므로 정부에서의 크고 작은 지원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자체의 노력으로 보다는 외부의 원조로 일이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성들은 가정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일에서 그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여성에게 양도됨으로써 매사에 적극성을 결여하고 있다.

#### 나. 여성의 역할

남성들이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곳 여성들은 적극적이고 또 솔선하여 일을 처리해 나간다. 각 가정 내의 성인 여성은 대부분이 해녀로 사실상의 가장이다. 그래서 가족의 생계는 이들의 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남성들이 그들의 능력을 쏟을 일터를 상실하고 부양자의 위치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생활해 오는 동안 노동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들은 최소 자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성들 사이에 은연중 생기는 경쟁심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생활태도가 그 심성에 굳어진 듯이 보인다. 가정 내의 모든 일도 두루 여성의 손을 거쳐 처리되고 있지만 여성의 역할이 가장 중요시되는 작업은 바로 잠수업이다. 바다에서 작업하는 여성들은 흔히 해녀, 잠수라고 불리우는데 이들은 바람이 멎고 바다만 잔잔해지면 사철을 가리지 않고 바다로 나가 작업하고 있다. 해녀들 대부분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어 여위고 외견상으로도 병색이 완연하게 과도한 노동의 후유증으로 피로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0년대 중반기부터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잠수복이 보급되면서 해녀들 사이에 소위 잠수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과거 무명옷을 입고 작업할

때에는 한번 물속에 들어갈 경우 한 두 시간 작업하고 물으로 나와 체온을 높인 후 다시 작업하여 하루 2회 작업에 최대 3시간정도만이 가능 하였으나 합성고무로 된 보온 잠수복의 등장으로 해녀들의 잠수시간이 2~3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박양생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무명옷을 입었을 때 22.5°C의 물에서 1시간 작업하면 해녀들의 체온이 35°C로 떨어진다고 한다. 체온이 33°C가 되면 사람의 의식이 흐려지고 행동이 부자유스러워지므로 해녀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대체로 체온이 35°C에 이르면 물 밖으로 나와 불을 쬐며 체온을 높인 후 다시 작업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온잠수복은 해수와 피부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여 체온의 하락을 늦어지게 하므로 자연수중 작업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보온 잠수복은 여러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고무 냄새를 독하게 풍기므로 오랫동안 냄새를 맡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리고 입고 있을 때 몸에 밀착되기 때문에 얼굴이나 손발이 부어오르게 된다. 그 밖에도 부력이 증가하여 잠수가 힘들게 되므로 허리에 납덩어리를 차게 되는데 이것이 허리에 부담을 주고 요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잠수병은 특히 바다속 깊이 잠수하는 상잠수들 사이에 심한 편인데 몸이 나른하고 물에서 나오면 귀와 코가 찢어질듯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여 견디기 어렵다고 한다. 몸 요소요소에 신경통 증세가 나타나 잠을 설치는 일이 빈번하게 된다. 잠수병에 시달리는 해녀들은 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진통제로 뇌신, 사리돈을 상습 복용하고 있다. 기력이 없는 해녀들은 보신탄을 들거나 링케르액을 주사로 맞으며 작업하고 있다.

생계 활동에서와 같이 마을의 제반 활동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도 역시 여성이다. 자원 보존을 위하여 외부의 잠수 기선의 침범을 막는데 있어서나, 타지역으로 결혼하는 여자의 경우 냉정하게 도서내 해역에서의 입어권을 박탈하여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는 인구수를 가급적이면 줄이고자 하는 시도도 여성들의 결의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예이

다. 마을의 일이 형식적으로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는 듯하나 모든 일이 여성들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있으므로 처리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해녀회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 조직이 되고 있다.

## 2. 생산 활동

도서 내의 자원을 이용하여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생계 전략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섬 내부의 토지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농업과 축산업, 연안의 해저자원을 이용하는 활동으로는 잠수업과 어업으로 구분되는 수산업을 들 수 있다.

### 가. 농업

도서의 전체 면적 30ha 중에서 경지 면적은 1ha에 지나지 않는다. 개척 초기에는 보리, 조, 콩, 피, 모밀 등 모든 작물이 풍작을 이루었다. 하나 무모한 섬의 개간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토양의 침식이 심화되어 점차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연로한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그들의 어린 시절보다 지금은 두지가량이나 토양이 유실되었다고 하는데 81년도 현지 조사 당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와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질층의 대부분이 30cm 내외의 깊이를 보이고 있고 섬 남단의 농경지만이 1m 정도이다. 농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방치된 대부분의 농지는 초지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농경지에서 경작되는 작물의 종류도 고구마와 감자등 구근류의 작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환금작물로 유채를 재배하고 있으나 해풍때문에 수확이 저조하여 남아있던 농토마저 버려지고 있다. 과거의 영농방식을 보면 年 2모작으로 11월에 파종한 보리를 이듬해 5~6월경에 베어내고 그 자리에 추곡인 조와 콩 등을 경작하였다. 이 당시 비료가 없었으므로 변소(통쉬라고 부름)를 넓게하여 깊이 판 후 보리짚 등을 자주 깔아 돼지에 의해 밟히고 썩힌 거름을 매년 가을에 파내어 토질이 척박해진 밭에 뿌리고 地力을

돌우곤 하였다. 돼지 우리에서 만들어진 거름과 마찬가지로 소 외양간의 거름도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 필요한 거름이다. 농사 일은 각 가정 중심으로 처리하였는데 남성은 밭을 갈고 파종하는 일을, 여성은 김을 매는 일을 전담했으며 수확할 때에는 남녀 모두 협동하여 경작한 곡식을 거두어 들였다. 경작 규모는 각 가정이 자가 소비할 정도만 생산하였으므로 농번기에 노동력의 수요는 각 가정 단위로 충당되었으며 협동노동 형태인 두레의 풍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품앗이는 흔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밭갈이 하루에 3일동안 김을 매어주는 교환 노동형태가 지배적이었다. 탈곡하는 기계는 보급되지 않았으므로 명석을 깔고 도리끼로 타작하였고, 타작한 곡식은 연자방아에서 찧어내어 각 가정의 주식으로 소비되었다. 오늘날까지 과거의 농업 상태를 말해주는 유물로는 신작로 해변가의 연자방아터를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남덕 위 1개소에 방아가 세워 있어 이 두 곳에서 생산되는 전량의 곡식을 찧어냈다고 한다. 농작물 생산이 저조해짐에 따라 주민들은 주변 해안의 해산물을 채취하여 범선을 이용하여 대정읍에 나가 주식인 보리와 교환해 왔는데 보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고구마로 연명해 나가야 했다.

오늘날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5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중 3가구는 연로하거나 수업을 못하여 물질을 못하는 가구이고 나머지 2가구는 해녀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거나 부업으로 농업을 하는 가구로 농사일 역시 여성들의 노동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밭갈이는 남성이 하지만 고구마 묘상을 놓거나 유채의 파종 및 김을 매는 일은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다. 경작 작물도 고구마와 유채로 자가에서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고구마는 절간되어 말려진 후 유채와 함께 농협에 판매되고 있다. 81년도 농협에 판매된 농산물 총 생산량은 절간된 고구마 100가마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의 노동 형태는 과거의 주농종어 식의 생계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이루고 있다. 연중 노동력은 다음과 같다. 1월에 고구마 묘상

농기, 밭갈이가 이루어지고 서바다의 톳 수확이 시작된다. 2월에는 김을 채취하며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구마의 묘종을 심는다. 3월에는 동바다의 톳 수확이 마을의 공동 채취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그 수익금은 노동에 참여한 전원에게 공평히 분배된다. 4월 중순에는 미역 채취가 각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며 채취된 전량을 채취자가 소유한다. 9월이 되면 꼴베기(사료 준비)가 시작되어 소를 사육하는 가정은 분주해진다. 또 밭에 경작한 고구마도 캐기 시작하여 절간되어 말려진 후 저장한다. 10월에 사료 준비가 끝나면 들에서의 일이 거의 끝나게 되는데 일부 가정에서 11월 중순부터 밭갈이를 하여 유채 씨앗을 파종한다. 파종한 유채는 5월에 수확하며 절간된 고구마와 유채는 농협에 판매한다. 이 밖에 연중 사시절을 가리지 않고 인근 해인의 해저자원을 채취하는 잠수 작업은 계속된다.

토지 소유 형태를 보면 원래 국유임야지로 있었던 것이 일제 시대에 최초로 이주한 개척민 6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 후 1975년에 마라분교를 증축하려던 문교부에서 학교 부지를 기부해야 교사를 지어주겠다는 통지가 있었다. 부지 마련을 위해 주민들이 의논한 결과 등기 명의로 올라있는 6인이 모두 생존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의 동의로 마라도를 주민들의 공동목장으로 재등기하고 학교 부지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등대 부지의 국유지와 학교 부지의 郡소유지를 제외하고는 섬전체가 공동 목장으로서 주민 공유지가 되고 있다. 공동목장으로 등기 전환이 용이했던 것은 우선 농사가 되지 않아 토지 자체가 중요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농토가 목초지로 변하여 私有地의 개념이 흐려 있었고 주민 모두가 인척이나 혈족관계로 얽혀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잠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토지 사유 형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러기보다는 오히려 토지의 이용권으로서 도서 내에 거주하는 동안에만 독점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섬을 떠날 때에는 이러한 이용권이 가까운 친척에게 양도된다. 배

매 대상의 부동산은 건물에 한정되나 가옥의 수요가 한정되므로 현지 조사 당시 세 칸 스투트집 한 채가 81 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 나. 목축업

숲이 제거된 자리와 경작지였던 토지가 초지로 변모됨으로써 현재의 초지 면적은 27.8 ha로 전체 도서 면적(30 ha)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우에 의한 토양의 유실과 해수에 의한 영향력으로 점차 농경이 불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은 방치되는 넓은 초지를 이용하려는 새로운 계획을 시도해 왔으며 이러한 시도의 결과 현재는 원주민 20 가구 중 16 가구가 소를 사육하면서 이 초지를 이용하고 있다. 마을에서 사육되는 소는 26 마리이며 이 중에는 낙도지구 어민 소득 향상을 위한 시도로 대정읍의 수협지소에서 대여한 5마리의 소도 포함되어 있다. 섬은 중앙부에서 돌담을 경계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남쪽에는 마을과 농경지가 자리잡고 있고 경계선 북쪽은 방목장으로 쓰이고 있다. 매년 봄, 공동 부역으로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목장의 허물어진 울타리를 보수하고 초지를 태워 묵은 풀을 제거함으로써 양질의 목초를 소에게 제공한다. 이 곳의 모든 소들은 각 가정의 외양간에서 겨울을 지내고 풀이 돌아나는 5월부터 목장에 풀어놓아 10월까지 방목된다. 월동 준비로 사료를 마련하기 위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각 개인이 관리하는 초지의 풀을 베어 저장한다. 개인적인 초지 관리는 과거 경작지였던 곳에 형성된 초지에 한정되고 있는데 주민들 사이 소유권은 주로 상속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특히 친족 관계로 얽혀 있으므로 남은 목초는 서로 나누어 건초 준비는 어려움없이 이루어진다. 초지의 풀은 건초로 쓰이지만 나머지도 모두 베어져 각 가정의 연료로 이용된다. 자원의 부족 현상은 연료 공급에도 나타난다. 한정된 초지의 풀로는 가정의 월동을 위한 충분한 연료를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곳 주민들은 들판에 널려있는 쇠똥까지도 연료로 이용하고 있다. 쇠똥을 수거하

는 일은 주로 아이들이나 여자들의 일에 속하고 이것을 반죽하여 손바닥 크기의 얇은 두께의 연료로 만드는 일은 여자들이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떡 모양으로 얇게 만들어진 쇠뿔은 도서내 곳곳에 깔려있는 바위 위에서 말려져 각 가정의 주 연료로 쓰이는데 그 화력이 연탄 불보다 강하다고 한다.

소를 길러 소득을 얻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암소를 길러 새끼를 낳아 키워 소득증대를 시도하고 있다. 소의 사육은 집에 있는 남자들의 일에 속하나 인력의 한계와 사료난으로 각 가정에서 사육 가능한 소의 수는 최대 3~4마리로 제한되고 있다. 새끼를 낳아 길러서 파는 경우 2년이 걸리는데 이때 소 한 마리의 가격이 80만원 정도이므로 연소득은 40만원이 된다. 새끼소를 사다 길러 판매할 경우에 생기는 이득은 이보다 적은 연 2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밖에 사육되는 가축에는 돼지, 닭, 개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돼지는 11가구에서 기르는 14마리로 정월명절이나 추석에 도살되어 주민들 사이에 판매, 분배되므로 주민들의 단백질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돼지는 이곳에서 오히려 청소부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된다. 돼지가 사육되는 곳은 통취라고 불리우는 변소인데 잉여식품이나 찌꺼기 특히 인분을 먹어치우므로 마을의 오물을 제거해내고 있다. 개를 기르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 주로 남자들 혹은 허약한 해녀의 보신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 다. 수산업

주변 해역의 풍부한 수산자원의 이용은 토지자원 이용의 침체 때문에 더욱 더 주민들의 주된 생계 전략이 되고 있다. 근래에 이르러 해의 수출과 수협을 통한 유통 구조의 개선 등이 상품의 수요를 높이고 있어 해산물 채취 작업은 더욱 유리한 생계 방법이 되고 있다. 더욱이 주변 해안은 현무암석으로 뒤덮여 있고 남지나해의 난류의 영향을 직접 받아 수온이 높은 관계로 풍부한 어족이 서식하는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근해의 자원은 두가지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남자들의 어선을 이용한 고기잡이와 해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채취업인 잠수업이다.

### (1) 어업

주민들 중 6명의 남자가 두 척의 어선을 이용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고깃배는 각각 0.5t, 1.5t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의 발동선 이므로 많은 인원이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 배의 규모가 이렇게 소규모의 것으로 한정되는 이유는 포구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날씨의 변화에 따라 물으로 배를 끌어 올려야하는 어려움 때문이다. 각각의 배에는 배의 소유자인 선주가 있고, 선주 외에 2인이 동승하여 작업한다. 이들 3인은 뱃동서라 불리우는데 저마다 소유의 그물과 낚시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 물때에 맞추어 그물을 치는 시기는 다르지만 대체로 새벽녘에 그 전날 쳐둔 그물과 낚시를 거두어 걸려든 고기를 잡고 난 후 다시 각각의 그물을 그물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다시 가설하는 작업에 뱃동서들은 서로 협조한다. 이들 뱃동서들은 기상의 변화에 따라 폭풍우가 예상되는 때에는 주위의 동료들을 모아 받침목을 깔고 어선을 물으로 끌어올리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 어로방법은 자망과 연승에 의한 것이나 소형 어선에 비교적 많은 인원이 작업하게 되므로 어로 규모나 장비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로 작업도 섬 주변 해안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획량도 극히 저조하다. 잡히는 어종으로는 방어, 구리찌, 흑돔, 돔, 옥돔 그리고 가오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어부들이 각각의 그물로 잡는 고기는 개인이 소유하는데 뱃동서는 선주에게 잡는 어획물의 10%를 뱃삿으로 낸다. 때에 따라 예기치 않은 큰 수확을 올리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어획량은 가정에서 찬거리를 마련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어획량이 많은 경우 중개상인이 찾아와 잡은 고기를 사가기도 하나 대개는 모슬포로 돌아가는 어선의 선주와 선장 매매를 통해



처리한다.

## (2) 잠수업

어선을 이용한 고기잡이가 남자들만의 일이었다가 섬주변 해안에 서식하는 해산물을 채취하는 잠수업은 여자들이 전담하고 있다. 개척 초기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 갯가에서 손으로 물 속을 더듬어 잡아도 바구니를 쉽게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패류나 해조류가 풍성하였으나 거주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농사일이 점차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 모두 해산물 채취업에 전념하게 되면서 해변의 자원이 희소해지기 시작하였다. 갯가에서 잡히던 소라나 전복 등의 패류가 물 속 깊은 곳에서야 잡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러가지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어로 도구는 물안경, 빗창, 호미, 태왁, 망사리, 소살, 줌망살이 등이 잠수 작업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이의 용도를 보면 물안경은 해녀들이 쓰고 물 속에서 사물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도구이며 망사리와 태왁은 박에 그물주머니를 매달은 것으로, 박은 잠수 후 물 위에서 휴식할 때 해녀들이 몸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며 망사리는 채취한 해산물을 넣는 주머니이다. 빗창은 폭이 3cm 정도의 얇고 길다란 칼 모양의 쇠붙이인데 전복이나 소라를 바위에서 떼어내는데 쓰이며 소살은 고기를 쏘아 잡는데 쓰인다. 줌망살리는 허리춤에 끼고 다니는 조그만 그물주머니로 물속에서 채취한 전복이나 소라를 넣고 물 위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주머니이고 호미는 미역이나 청각, 우뚝가사리 등 해초를 떼어내는데 쓰인다. 이러한 도구중 잠수업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해녀의 필수적인 도구가 물안경이다. 물 속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중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해녀들의 전문적인 잠수업이 시작된 것은 물안경이 이용된 시기로 소급해 볼 수 있다. 수경이 만들어져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주도에서는 1820년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강대원, 1973:65). 그 이전의 잠수업이란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물 채집 방식의 하나로 육안으로 보이는 해산물을 수

거하는 단순한 식료 획득 방식이었다. 즉 썰물 때마다 바닷가에 나가 바위 틈을 살펴 틈바구니에 붙어있는 여러가지 해산물을 채집하는 작업에 지나지 않았었다. 물론 물안경이 없어도 물 속에서 맨 눈으로 사물을 식별하고 눈에 띄는 해산물을 채취할 수는 있으나 장시간에 걸친 수중작업은 이례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마라도 정착민들의 예를 보면 이들은 정착 초기에 안경이 없어서 쇠뿔을 달구어 유리 조각을 둥글게 만들어 끼운 후 이것을 통해 물밑을 살피고 해산물의 위치를 확인한 후 잠수하여 채취하였다고 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잠수 도구가 많이 개선되어서 해녀들은 이러한 편리한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물안경인 족세눈은 쌍안경으로 겨우 눈을 가리는 정도여서(후에 공기주머니를 부착하여 개선되기는 했지만)물 속에 깊이 들어간 경우, 수압 때문에 눈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오늘날 사용되는 물안경은 왕눈이라고 불리는 대형 물안경으로 눈과 코를 동시에 가릴 수 있어서 전통적인 안경의 단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시야로 선명하게 사물을 식별할 수 있다. 물안경 외에 혁신적으로 개선된 잠수 장비로는 잠수복과 오리발을 들 수 있다. 잠수복은 고무와 스폰지로 되어 있어서 과거의 무명옷과는 달리 해수를 차단하여 체온의 하락을 막아주므로 장시간에 걸친 바다에서의 작업을 가능케 하였으며 오리발은 물갈퀴로서 발에 신고헤엄쳐 몸놀림을 빠르게 하였다. 이러한 현대식 장비가 해녀들에게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그 잇점에 못지 않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마라도의 해녀 수는 모두 18명으로 원주민 전체 20가구 중 15가구의 부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마을에 조직된 해녀회의 해녀들로서 자체로 규정된 여러가지 규칙을 엄격히 지켜나가야 한다. 해녀들의 연령은 16세부터 76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연령층이 보여주고 있듯이 노소에 구분이 없이 도서 내에 거주하는 모든 여자들

은 잠수 능력이 있으면 물에 들어가 작업을 한다. 특히 만삭이 되거나 월경이 오거나 개의치 않고 작업에 필요한 체력만 감당할 수 있으면 누구나 잠수 작업에서 빠지려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들이 보여주는 작업에의 욕심은 억척스러움을 넘을 정도이다. 작업량에 따른 수익은 모두 개인이 소유하게 되므로 동료들 사이의 경쟁력도 대단하다. 해녀들은 다른 동료가 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물론, 생각만 하는 것도 참을 수 없다고 한다. 해녀의 작업은 근본적으로 협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행해지는 개별 노동에 근거하고 있는 작업이다. 한 치의 물 속이라도 깊이 들어가고 재빨리 보다 넓은 지역을 헤엄쳐 다닐 때 보다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경쟁은 더욱 고조된다. 작업장은 <도1>에 표시된 섬 주변 지역인 제1종 공동어장으로 이곳에서는 타지역 사 람이나 어선들의 조업이 금지되어 있다. 작업할 때에는 모든 해녀가 모여 함께 물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협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해녀가 공평하게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 중 하나에 따르는 것이며, 이러한 규율을 어기고 혼자 물에 들어갈 때에는 해녀회에서 가해지는 제재를 받게 된다. 작업할 때 해녀들은 각자 뒤웅박에 몸을 의지하고 오리발로 물을 헤치며 수경을 통해 물밑의 해산물의 유무를 살핀다. 채취 대상의 해산물은 전복, 소라, 성게, 해삼, 문어, 청각, 우뚝가사리, 툫, 미역, 김 등이다. 이들이 시야에 비치면 위치를 확인하고 채취에 알맞는 도구를 들고 잠수하여 채취하고 나온다. 채취물은 태왁을 매어 놓은 망사리에 넣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되풀이한다. 최근 연구된 박양생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물 속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30초, 태왁에 머무는 시간이 40초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물 속에 오래 머물러 쉬 탈진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해녀들의 잠수 시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2분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취량은 해녀들의 잠수 능력에 따라 다르다. 거둬지는 작업으로 해서 자

원이 점차 희소해짐에 따라 사람이 닿기 어려운 깊은 물 속에 이르러서야 해산물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잠수 능력은 채취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능력에 따라 해녀들은 상군, 중군, 하군으로 구분되는데 열길 깊이의 물 속을 잠수할 수 있는 해녀를 상군, 여덟길 깊이를 잠수하는 해녀를 중군, 그 외는 하군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확량은 중군에 속하는 해녀가 하루에 전복 2~3kg, 소라 6~8kg, 그밖에 문어, 낙지, 해삼, 해초 등을 채취한다. 채취량의 가격은 81년도 수협 지소의 입찰 가격(전복: 9,700원/kg, 소라: 1,730원/kg)을 기준으로 볼 때 소라, 전복의 값만으로도 월 30~40만원이 넘는다. 상군은 50~60만원, 하군은 중군보다 낮은 20~30만원 선이다. 소라, 전복 외의 나머지 채취물은 주로 가정의 찬거리로 소비되고 있다.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은 미역과 톳을 채취하는 시기에 이루어진다. 미역과 톳의 채취는 마을의 내규로 금채와 허채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허채 시기인 일정 기간외에는 채취할 수 없다. 금채 기간의 설정은 가장 성숙한 시기에만 해초를 채취하도록 하여 수익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주민들은 이금채율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누군가가 이러한 규칙을 어기고 채취 작업을 하다가 발각되면 어로 도구 및 채취된 해산물 일체가 압수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정의 벌금까지도 해녀회에 바쳐야만 차후 해산물의 채취가 가능하다. 미역은 11월 부터 다음해 3월까지 채취가 금지되고 4월에 허채되는데 이 때에는 전 가족이 동원되어 보다 많은 양을 채취하고자 협동한다. 채취되는 해산물은 모두 채취자의 소유가 되므로 작업할 때의 열의는 보다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을 뜻하게 된다. 채취 작업 과정을 보면 해녀가 물 속으로 잠수하여 호미로 바위에 자라고 있는 미역을 베어내면 남자들이 물으로 운반해간다. 미역 채취시 잠수할 수 없는 연로자를 위해서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할망바당이라 칭하고 일반해녀들은 이 곳의 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하여 갯가의 자원은 노인들만 이용하게 하는 제도가 실

시되어 왔다. 툇은 일본으로 가공 수출하게 됨에 따라 70 년대에 이르러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고 따라서 주요한 자원으로 부각되었다. 툇 채취에도 역시 금채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연중 두 차례(1월은 서바다, 3월은 동바다)에 걸쳐 이루어지는 채취작업은 마을 공동으로 행해진다. 채취시에는 외지로 나가있는 주민들을 비롯한 마을의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여 작업에 협동한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는 수익금이 참여자의 수에 따라 공평히 분배되기 때문이다. 작업은 미역 채취 때와 같이 해너들이 물속까지 잠수하여 바위에 자생하고 있는 툇을 베어 일정 지역에 모아 놓으면 남자들이 물으로 운반하는데 높은 벼랑에서 운반할 때에는 도르레를 사용하기도 한다. 채취된 전량은 상인들이 상선을 가지고 와 싣고 가는데 판매가격은 등급에 따라 kg 당 수협에서 경매에 의해 결정된다. 해너들의 작업 장소는 섬 주변의 제1종 공동어장의 수역에 한정되고 있다. 타지역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 일정 수역에서 작업하는 소위 뱃물질이 있으나 이곳에서는 갯물질(갯물질)만을 행하고 있다. 이는 마라도가 심해중에 위치하고 있는 화산도이므로 공동 어장을 벗어나면 수심이 깊어 해너들의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작업은 바람이 없고 바다만 잔잔해지면 연중 어느 시기나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데 연평균하여 볼 때 한달의 작업 일수는 15일 정도이다. 이따금 상어 따위의 큰 물고기들이 나타나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빈번하며 깊이 잠수할 때에는 질식할 위험도 따른다. 손목에 고정된 빗창으로 바위 위에 붙어있는 전복을 채취하는데 전복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빗창을 벗어내려다 질식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 4. 물자의 유통과 소비

주민의 주교역지는 행정상으로 마라도가 소속되고 있는 대정읍 모슬포티이다. 인구 26,088명의 이 도시에는 지방행정기관인 읍사무소를 비롯하여 농협지소, 수협지소, 은행 등 주요 기관이 모두 모여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물건이 진열된 점포, 상점이 들어서 있고 5일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시장이 열리고 있어서 이 곳은 읍내의 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他面 사람들이 사고 파는 물건의 집산지가 되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의 유통에는 농협 및 수협지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마라도와 이어지는 정기 연락선 역시 모습포항을 모항으로하여 운항되고 있으므로 조사 지역의 주민들이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모든 물자는 이 도시의 유통 조직을 통해서 구매되고 있다.

마라도의 농산품인 절간 고구마는 농협을 통해서 판매되는데 입찰 가격은 가마당 8,500원, 총판매량이 겨우 1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주민들의 주요 생산품인 수산물 중 패류, 해조류 등도 이 곳의 수협을 통해 거래되는데 가격은 매년 설정되는 입찰 가격에 준하고 있다. 해녀들이 채취하는 소라와 전복은 주민 한 사람이 위탁 판매를 맡고 있는데 이 업자가 그날 그날 채취된 것을 전 해녀로부터 수집하여 수협으로 넘긴다. 죽은 전복이나 소라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수집된 패류는 모두 그물주머니에 넣고 바닷물에 넣어 두었다가 연락선이 닿을 때 운반해간다. 위탁업자는 패사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면서 노동의 댓가로 해녀로부터 총 판매 소득의 10%의 마진을 받고 있다. 해조류로는 툇과 미역이 수협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수협지소에서 집계한 80년도 마라도의 수산물 총 판매량은 아래 표와 같다.

수산물은 70년대부터 수협을 통한 유통 구조의 개선과 해외 수출이 증가되면서 가격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래서 해녀들은 유리한 상품을 채취하는 데 전념하게 되었고 가뜰이나 토양의 침식에 의해서 부진해진 농업은 더욱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농협이나 수협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것에는 축산물과 생선류 두 종류가 있다. 소형 어선에서 잡히는 생선류는 모두 중간 상인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그 밖에 축산물인 소와 돼지는 상인들이 마라도를 직접 방문하여 구입해가고 있다.

〈표〉 1980년도 수산물 총생산량(80년도 수협 모슬포지소 집계 자료)

품명	생산자 (kg)	단 가	금액 (원)	비 고
돔	5,727	1,700	7,213,809	등급에 따라 단가가 달라짐
김	200		100,000	
미역	12,000	500	6,000,000	입찰자의 입찰 금액에 따라 단가에 차이 있음.
전복	641		4,632,691	
소라	18,253		29,992,656	
총계			47,237,270	

생활 필수품으로 이 곳 주민이 모슬포에서 구입해오는 물품에는 쌀과 보리, 김장감 그리고 연료에서 석유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생활해가고 있다. 도서 내에서의 거래는 가게 2개소에서 담배, 과자류, 청량음료, 국수, 라면 등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고 그 밖에 주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필요한 물건을 꾸어가고 다시 값은 식의 물물교환이 지배적인 거래 양상이다. 도서 내에서의 생활에는 많은 생계비가 요구되지 않는다. 쌀과 보리쌀 그리고 김장거리에 한정된 생활비로 쓰이는 최소 생계 자금만이 지출금의 전부이므로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들도 읍에서 지급하는 구호 양곡과 돔 수확시 주민 각자에게 분배되는 자금으로 능히 생활해 나가고 있다.

해녀들의 수익으로 자녀들은 외지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일부 가족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여 타지로 이주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도서민의 생활은 우리가 추측하는 것과 같이 가난에 쪼들리고 있지는 않다. 마라도의 수산물 생산량에 의한 연간 수익금이 무려 4,7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밖의 어업과 축산, 농업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감안하면 호당 평균 소득이 연 250만원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감수와 부부가 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는 월 소득이 50~60 만원에 이르고 있다. 도서민이 도서의 어려운 환경에 머무는 것은 그래도 그들의 서식지가 다른 곳보다도 살아갈만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 V. 사회조직

사람들은 완전한 자연인으로 개인 생활을 하는게 아니라 집단 속에 조직되어 들어가서 그 일원으로서 행동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개체로서 욕구를 지닌 존재이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은 그 밖의 유기체와는 달리 사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사회 조직의 기본 형태가 도서 사회인 마라도 마을에서 어떠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고 그 조직의 형태는 그들의 적응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혼 인

마라도의 마을은 혼성 부락으로 여러개의 姓氏를 갖는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민 상호간에 혈족 및 인척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島内婚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민들의 친족 관계는 개척 초기에 이주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누이 바꿈”으로 이주민 가족끼리 통혼하였으므로 오늘날과 같이 복잡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혼인 양상은 島外婚이 지배적이며 통혼 지역은 주로 생활권의 영역에 속해 있는 가파도와 대정읍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육지부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혼인시 배우자의 선택은 부모들의 의사가 중시되는 중매혼보다 혼인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시되는 연애혼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혼인식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늦어질 경우에는 양가 부모의 동의 하에 약혼식을 올리고 동거 생활을 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결혼식을 하고



정식 부부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혼인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혼인의 거주 양식은 夫方에 기초를 둔 新居制로 혼인한 여자는 결혼과 더불어 친가를 떠나 남편의 가족 일원으로 편입된다. 그러므로 혼인식과 더불어 이 곳의 처녀들은 주민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아울러 도서 내의 자원 이용권이 박탈된다. 상실된 자원 이용권을 다시 찾는 경우는 남편이 사망하여 도서 내에 재거주하게 될 때에 한한다. 혼인하는 아들은 모두 분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남이나 차남 혹은 말자를 구분하지 않고 혼인과 더불어 신혼부부는 새로운 거처지를 정하여 부모의 집을 떠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독자적으로 생계 활동을 행하게 된다. 분가할 경우 재산의 분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토지는 주민 공동 소유로 등기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는 단지 이용권이 상호간에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또 토지에서의 생산성이 낮아 토지 자체는 상속 재산의 의의를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신혼 부부는 자력으로 생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부부 중심의 핵가족은 생산 과정에서 노동의 최소 단위가 되고 있어서 부부간의 성별 분업이 생계 수단의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특히 생계를 해쳐 수산자원에 의존하고 있고 또 수산자원이 주로 여성의 잠수 기술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므로 잠수 기술을 지니지 못한 여자를 아내로 맞는 남성들은 도서 내의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족의 상속이나 일정 토지에 대한 이용권은 장남이나 그 밖의 특정한 자식에게 상속되는게 아니라 도서 내에 거주하게 되는 자녀에게 양도되고 있다. 생계 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고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의사가 의사 결정에 주도권을 쥐고 있으므로 혼인 형태는 엄격히 일부일처제가 지켜지고 있다. 남자가 외부의 여자와 가까와질 경우 이 곳의 여자들은 이혼을 자청하고 남편과 헤어져 혼자 생활해 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을 내에 처첩을 거느리고 있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자녀의 선호 의식에서도 아들을 중시하는 타지역의 풍조는 많

이 쇠퇴되어 있다. 아들은 생활에 부담을 주는 식솔이 되나 딸은 생활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서 딸이 중시되고 딸 많은 집안이 부자로 여겨지고 있다.

## 2. 가 족

주민들의 지배적인 가족 형태는 핵가족으로서 각 가족은 혼인한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 전체 20가구중 18가구가 핵가족이며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4.1명이다. 그러나 실제 거주 인원을 50명으로 고려하면 호구당평균 가족수는 이보다 낮은 2.5명이 된다. 혼인한 부부와 혼인한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공동 취사하는 소위 확대 가족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는 모두 두 가족으로 이 중 한 가족은 최근 타지역에서 경제난으로 이주해와 분가 능력이 없어 부득이 동거하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한 가족은 질병으로 인해 혼인한 아들이 남아 누워 있어서 모친이 동거하며 돌보는 가족으로 모두 잠재적으로는 핵가족으로 분산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가족이다. 이렇게 핵가족이 지배적인 가족 형태가 되고있는 이유는 혼인하는 자녀들의 분가 당연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장남이나 차남이나 가리지 않고 혼인하면 모두 분가하기 때문에 부모와 그 혼인한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예는 지극히 드물다. 한 마을 안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자식과 별거하여 탄 살림을 하는 노인 가구가 3가구, 그 밖에 자식들이 타지로 나가고 노인들이 남아 자활하고 있는 가족이 2가구로 자식과 독립하여 생활하는 노인 가족은 전체 20가구중 5가구로 그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다. 저마다 자기 몫은 자신의 노동에 의해 얻어내야 한다는 자활 의식이 강해서 노인들도 거동이 불편하여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는 자식들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는다. 해녀 중에 76세의 노인 해녀가 아직도 손녀 해녀들과 함께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은 이 곳에서는 조금

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분가 현상은 자연 자원에 의존하는 생계 경제 체제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곳의 자원은 모두 공동 소유로 되어있는 관계로 토지 등 중요 생산 수단이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토지에서의 생산성이 낮아 생계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희박한 상태에 있다. 특히 이 도서에서는 공동 자원에 생계를 의존하게 되므로 자원 이용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생산 수단이 되는 것은 토지나 자본이 아니라 단순한 신체적인 노동력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노동력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되므로 이러한 생산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생계 전략이 된다. 도서 내의 이용 가능한 자원의 양이나 종류에도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한정된 자원을 일개인이 이용할 경우 그 생산성마저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소수 인원의 노동만으로 내 가족을 부양해 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핵 가족의 가족 형태는 확대 가족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잉여 노동력을 최소 생계 단위로 분산함으로써 생계 활동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식이 된다. 특히 이 곳 남성들이 도서 내에서 적절한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가 원칙에 의해 혼인은 남성들에게 가장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부여하고 이들의 생활 의욕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마라도의 마을에서는 핵 가족이 부부중심의 성별 분업에 의한 사회적인 최소 노동 단위이며 가장 효율적인 생산 수단이 되고 있다.

### 3. 친족 조직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12개의 姓氏로 구성되었으나 이들은 서로 혈족과 인척으로 얽힌 친족 관계에 있다. 원칙적으로 혼인한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는 부계 출제율에 따라서 부계 친족 집단의 일원으로 귀속된다. 또한 혼인하는 여성은 남편의 부계 친족원으로 편입되어 친정 가족과는 소위 ‘출가외인’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들 부계 친족집단은

대부분 육지부에서 정치적인 사건에 연유되어 제주도로 귀양온 양반계층의 후손들이다. 개척 당시의 이주민 중 한 가족으로 현재 이 마을 친족 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N씨 가족의 족보는 양반 계층이 입도한 역사적 배경의 한 예를 밝혀주고 있다. 이 족보에 따르면 N씨의 9대손인 宗弘씨가 영조 6년 무신년에 대역죄를 범하여 일족이 멸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아들인 宗大씨는 13세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참형을 면하고 제주도로 귀양오게 되었고 제주에 도착 후 대정읍에 정착하였다. 마라도에 최초로 이주한 汝弘씨는 제주도 입도조인 宗大씨의 12대손이다. 현재 마라도에 거주하는 N씨 일족은 汝弘씨의 6대손에 이르고 있다. 도서 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부계 친족 집단의 결속력은 약화되고 인척 관계를 통해 서로 얽히게 되므로 지연 중심의 친족 조직으로 변모되어 갔다. 즉 상이한 성씨의 이주민 가족은 개척 초기에 서로 누이바꿈의 혼인을 행함으로써 상호간에 인척 관계를 맺게 되었고 상호부조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될 수 있었다. 주민들은 모두 삼촌, 조카 사이라고 서로의 관계를 밝히고 있듯이 인척이나 혈족을 구분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계 친족 집단을 상호 연결하고 있는 것은 주로 여성들이며 이들의 관계 여하에 따라 친족 집단의 친밀도가 결정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을 통한 인척 관계의 확대로 부계친의 배타성은 약화되고 지연 중심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공동체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주민들은 상호간에 호혜적 관계를 이루어나가고 있다.

#### 4. 공동체 조직

토지를 포함한 주요 자원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주민들 사이에 그 이용권을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내부집단의 통합을 이루는 반면에 외부 집단에 대해서 배타성을 강조하는 마라도의 사회 조직은 전형적인공동체의 특성을 띠고 있다. 도서 내에서 인척과 혈족을 구분하지 않는 특수한 친족 조직이나 그 밖의 금기 사항이나 의례 활동 등은 모두 집단

성원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공동체 내의 자원에 대한 외부 집단의 개입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본도로의 전입자가 있을 때에는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里長 중심의 부락회의에서 입주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전입자들은 거주민의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고 있다. 또한 외부 지역으로 혼인해 나가는 여성에게서 혼인한 날로부터 주민으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 이용권까지도 박탈함으로써 혼인을 통한 인구의 유입까지도 막고 있다. 이처럼 희소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은 자원의 이용 절차에서만 아니라 그 보존의 차원에서 세심한 고려를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자원의 공동 소유 형태는 부재 지주의 토지와 자원에 대한 사유권을 배제함으로써 실거주자들이 자원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

공동체 조직을 움직이는 마을의 의결기구로는 동회와 해녀회가 있다. 동회는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과 총무 및 2개반의 반장으로 구성되는데 이 직책은 모두 남자들이 맡는다. 이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모든 임원은 부락 총회에서 주민들이 선출한다. 동회는 이장의 주도하에 매년 음력 6월과 12월 말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총회와 필요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열리는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이 회에서는 마을의 중요 사업을 계획하거나 수행하는 안건, 공동채취한 해산물의 수익금을 분배하는 문제, 그리고 전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심사하고 전입을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문제 등이 다루어진다. 성인 주민들은 모두 남녀노소의 구별없이 본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해녀회는 18명의 마을 내의 해녀들의 모임이다. 해녀회장을 중심으로 해녀들의 사업을 토론했는데 공동 어장 내의 불법 어로 작업 방지, 자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일들이 이 회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 밖에 남성들의 비위를 적발하고 이것을 단속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도서 내에서의 술 판매 금지 사항도 이 해

녀회에서 결정되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해녀회가 주도하는 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근 해안의 해저 자원을 보호하고 또 이용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다. 특히 잠수 기선이 공동 어장 내로 침범하여 해산물을 채취해 갈 때에는 전 해녀가 나와서 뒤옹박을 타고 헤엄쳐 가 잠수 기선을 물리치는데 협조하고 있다. 자원 이용 과정에서도 금채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성숙하지 않은 소라나 전복을 잡는 행위, 혼례나 장례식 때 향약에 규정된 의례 준칙에 어긋나는 혼수나 부의금 등도 모두 해녀회가 단속하고 있다.

해녀회가 주동이 되는 일은 전 해녀가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철저히 수행되어지는데 반하여 남성들이 중심이 되는 동회는 남성들간의 이해 관계가 엇갈려 의사 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里長의 임기는 자체 규약에 의해서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외부 지역과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이장의 권위가 변방 도서 지역이라는 특수한 여건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어서 한번 이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타인에게 양보하려 하지 않으므로 마을의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락민 사이에 협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중앙의 고위 인사나 유명 인사들이 제주도를 방문할 때 간간히 이 섬을 방문하는데 이장은 이들을 접대하고 어울릴 수 있으므로 그 지위가 타 지역의 이장의 지위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자치적으로 도서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변방 지역인 본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끊이지 않았다는 데에도 한 원인이 있다. 즉 지금까지 도서 내에서 이루어진 크고 작은 사업들은 모두 정부나 지방 행정지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1958년의 분교 건립으로부터 시작하여 방파제 건립(태풍으로 소실됨), 선착장 공사, 조립 사업, 지붕 개량, 전기와 무선전화 가설 등은 모두 외부의 조력에 의해 실시된 사업이다. 공동 작업으로 채취한 톳과 미역의 연간 판매 소득(1980년도)이 13,213,809원에 달하고 있어서 이 소득에서 공동 기금을 마련하여 소규모의 사업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체 기금을 마련하여 섬을 개발하려 하지 않는다. 현지조사시 주민들은 숙원 사업이란 수 있는 포구를 마련하는 문제에 고심하고 있었다. 어선 1척이 늘어서 도서내의 소형 어선이 모두 2척에 이르게 되므로 포구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였다. 그 이유는 배를 안전하게 대피시킬 포구를 갖지 못해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때마다 장정을 동원하여 배를 물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장시덕 장군석 근처 웅덩이에 포구를 만들 것을 의논하고 있었다. 마침 그 전해 태풍에 파손된 신작로와 장시덕 선착장을 보수하기 위해 찾아온 인부들이 물 밑의 바위만 제거하면 수척의 어선을 대피시킬 수 있는 포구 시설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 용기를 얻고 있었다. 그러나 밭과 작업에 소요되는 150만원 가량의 자금 문제에 부딪혀서는 저마다 언급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로 작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으로 이익이 없는 사업에 개입하려 들지 않았다. 또한 어로 작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섬을 영구적인 생활 근거지로 여기지 않고 있으므로 개인 부담으로 공사를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마라도가 이주자들의 중간 거처지가 되고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다. 즉 타지역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 이곳에 거주하면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금을 모은 후 다시 타지역으로 이주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중간 거처지가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서의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직접적인 이득을 주는 일에 보다 큰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해저 자원의 이용이다. 자원 이용의 절차는 주민 자체 규약인 향약에 세밀하게 정해져 있다. 향약(고상용, 1965:105)에 의하면 본도의 거주민은 누구나 入漁權을 가지며 본도 주민으로서 타지방으로 이주한 자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입어권이 없고 和布(미역) 채취 후 타 지방으로 가서 본도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입

어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예컨대 잠수어업, 어업 작업의 대기소로 移島할 경우에는 본도의 유지가 되는 이들의 가부로 입어권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도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자연히 입어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낙도에 근무하는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향약에 의거하여 본도는 입어권에 대하여서는 행정관청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관습에 의하여 어업의 질서를 유지해가고 있다.

마라도민의 향약은 총론, 해산물, 부여, 관혼상제, 우마장, 회의, 재정, 그리고 부칙을 끝으로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마을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부록 참고). 1965년도에 문서화된 향약은 부분적으로 변모된 곳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이 규약에 의거하여 질서를 지켜나간다. 오늘날 개정된 규약에 의하면 외지의 사람이 본도의 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원래의 거주지에서 퇴거하고 본도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미리 자원 이용을 위한 선수금 15만원을 마을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고도에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3개월 동안은 생계활동을 못하고 지내야하는 조건인데 이것은 사실상 외지인의 전입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규약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입자들은 주민들의 친척에 한정되어 있고 이들 친척의 전입시는 자체의 규약이 주민들 사이에 타협으로 완회되므로 도서내에서의 생활이 가능해진다.

## VI. 종교생활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 환경의 특성에 적응하고 생존을 지속해 나가기 위하여 그 환경의 잇점을 이용할 지식이나 기술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 못지 않게 그 환경이 지니고 있는 불확실성의 요인들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진다. 왜냐하면 일상 생



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날씨의 급격한 변화나 한발, 그 밖에 예기치 않은 사고, 질병 그리고 죽음 등등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그것이 발생하는 원인이 규명되지 못한 채 이와같은 여러 사건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심리적인 긴장과 불안을 끊임없이 야기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가능케하는 지식 체계를 갖추지 못한 고립된 지역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집단마다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설명하고 심리적인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고립된 집단인 마라도민이 갖고 있는 특수한 종교 형태가 그들의 생활 환경의 특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초자연적인 존재의 개념

마라도를 근거로 하여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주민들의 일상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초자연적인 존재는 우선 마을의 수호신으로 신봉되는 하르방신(할아버지 神)과 할망신(할머니 神), 다음으로는 각 부계 친족마다 모셔지는 조상神, 그리고 떠도는 혼령들로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잡귀들,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의 세 부류의 神들로 구분된다. 이러한 신들은 모두 인격화된 신들로서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신들이다. 우선 섬을 주관하는 主神인 하르방신은 천상에 거주하면서 지상 세계에는 아끼인 소위 할망신을 만나러 이따금 강림하는데 근엄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나 대우를 소홀히 하면 재앙을 내리는 엄격한 신이다. 주로 천상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주관하며 날씨의 변화를 좌우한다고 믿는다. 본 도서로 강림하는 길목이 장군석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곳은 신성시되어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 금기를 어기고 누군가 바위에 접근하였을 때 신이 노하여 금기를 어긴 자를 벌하고자 돌풍을 내리는 것으로 믿고 있다.

할망신은 가정에서의 할머니를 연상케하는 자비롭고 자상한 성격을 지닌 신으로 도서 내에 마련된 본향당에 머물며 주민들의 일상사를 소상히 살펴 그들에게서 위험을 덜어주고 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세심히 염려하고 있는 신이다. 그러므로 주민들 모두가 가장 정성스럽게 받들고 섬기는 주민들의 수호신이다.

다음으로 조상신은 모두 생전의 친족원들 사이에 갖고 있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혼령들로 사후에 혼령이 육신을 떠나 저승으로 돌아가나 이승 세계로 빈번히 돌아와 후손들을 돌보는 신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 조상신 모두가 사소한 일에도 쉽게 마음이 토라지고 화를 내기 쉬운 성격의 신들이다. 그래서 정성스레 받들어 모시면 복을 내리나 소홀히하여 돌보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는 신이다. 그런데 조상신은 누구나 성장하여 혼례를 치르고 자손을 본 후 사망하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끝으로 잡귀는 정처없이 떠도는 혼령들로서 특히 도서 내에서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혼령들을 총칭한다. 의지에서 건너왔거나 도서 내에서도 무死한 사람들의 영혼으로 의례의 대상에서 제외된 혼령들이다. 흔히 귀신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이들 혼령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이 총각, 처녀 귀신이다. 이들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은 까닭에 현세에 대한 遺恨이 어느 다른 혼령보다 크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유한을 풀기 위해 生者를 괴롭히게 된다. 급환이나 돌발적인 사고는 처녀, 총각 귀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를 피하려면 이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처녀, 총각의 혼령이 가지고 있는 한을 풀어주거나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死後婚의 의례를 거행한다. 사후혼은 “未婚의 死者를 靈界에서 成婚시키는 습속”이다. 成婚의 방법은 중매를 통해 양가 집안끼리 許婚하고 절을 찾거나 무당을 불러 두 배우자의 위패를 세우고 혼례식을 거행한다. 혼례식을 거행한 후 묘자리를 구하고 부부의 묘를 함께 함으로써 성혼과

정이 끝나는데 기제사는 신랑 측의 가정에서 거행한다.

## 2. 의례

초자연적인 존재와 관련된 의례는 祭儀의대상이 되는 神에 따라서 거행되는 시기, 장소, 절차가 달라진다. 주민들이 거행하고 있는 의례는 각 부계 친족집단의 조상신을 위한 조상의례와 하르방신을 위한 부락제인 脯祭, 그리고 여성들만 참여하는 할망神을 위한 할망당제가 있다. 이러한 각종 의례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도움으로 어떤 사건을 바람직한 상태로 이끌거나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고립된 도서 환경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의례의 행위의 결과를 떠나서 심리적인 위안을 줄 뿐만 아니라 불안을 제거하는 한 방법이 되고 있다.

### 가. 조상 의례

조상 의례는 한반도의 공통된 조상 의례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으나 의례의 성격은 새로운 생활 환경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원래 조상 의례가 갖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의 조상 의례는 부계 친족원을 그들의 공동 조상을 중심으로 결속하게 하거나 유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의례에 참석하는 친족의 범위가 한정되고 있는데 반해 본도의 조상 의례는 모든 주민들의 참석이 의무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의 의례 목적과는 상이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 곳의 특수한 친족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상 의례는 부계 친족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락민 전체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행되고 있으므로 참여자의 범위가 주민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조상 의례는 장례식, 삭망과 매소기의 의례 그리고 기제사로 구분된

다. 오늘날 실시되는 이러한 의례는 1965년도 향약을 명문화할 당시, 의례간소화를 위해 마련된 정부의 시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매우 간소화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는 전 주민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고인을 추모하며 시신을 매장하는 일에 참여한다. 이 때에는 해너들의 잡수 작업은 물론 마을의 공동 작업인 톳 수확이나 미역 채취 작업까지도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모두 중단된다. 장례식은 대개 3일장으로 끝나는데 묘소로는 섬 중앙부로부터 북단에 걸쳐있는 목장 지대에 喪主들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곳이 선택된다. 묘소가 정해진 후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여 屍身을 매장하고 封墳을 만든 후 봉분 주변에 돌담을 쌓아 외장을 두른다. 이 외장은 제주도 전 지역 분묘의 특징이 되고 있는데 이 곳 사람들은 산담이라고 부른다. 무덤이 목장 지대에 위치해 있으므로 외장을 두르지 않으면 방목되는 소들이 뿔로 봉분을 갈아 파손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어느 묘소에나 반드시 만들어지고 있다.

식망이나 대소기의 의례에는 향약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의 참석이 금지되고 있다. 직계 자손(즉 喪主)만이 고인을 위해 조석으로 식사를 드리는 절차로 끝난다.

조상 의례에서 주민들이 가장 중요시하여 거행하는 의례가 忌祭祀이다. 5代孫止祭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이 곳의 기제사는 고인이 사망한 전날에 제의 절차에 따라 제물을 준비하여 쟈상을 차린 후 고인의 위패를 모시고 거행된다. 초저녁에 상주가 쟈상을 차린 후 주민들이 참석하여 杯를 올리기 시작한다. 罷祭는 자정에 이루어지는데 쟈상을 차리고 파제하는 사이의 시간 동안 전주민이 드나들며 차례로 제물로 마련된 음식을 대접 받는다. 제사날에는 마을에서 판매가 금지된 소주가 마련되어 찾아오는 손님에게 대접되는데 이 때에도 두 되 이상의 술이 나올 경우에는 해녀회의 제지를 받게된다. 기제사의 중요성은 바로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 음식물을 나누어 먹는데 있다. 마을 내의 빈번한 기제사

에서 음복 절차로 음식을 마련하고 나누어 먹는 일은 주민들을 친족 단위로 구분함이 없이 하나의 공동체의 성원으로 결속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제로는 정월 명절과 추석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 때에도 조상에 대해 드리는 제사를 우선하여 거행하고 각 가정마다 조상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한다. 조상 의례시의 제관은 남성들이 담당한다.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정읍의 장터로 드나드는 일은 남성들이 맡고 행하지만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여성들의 일에 속한다.

의례 준칙은 1965년도 성문화된 향약속에 규정되어 내려오는데 이 당시 강조되었던 정부의 의례 간소화 시책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弔意의 예물을 곡물과 현금으로 한정시키는 조항(제 44 호), 그리고 대소기의 조의객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제 46 조), 마지막으로 기제사시 제삿밥을 각 가정에 분배하는 것을 금하는 조항(제 46 조)에서 나타나고 있다.

#### 나. 포제

주민 전체의 안전과 풍요를 비는 공동 의례인 脯祭가 天神인 할아버지신을 위해 거행되고 있다. 원래 포제란 “논밭에 虫害가 심할 때에 그 해를 떠는 神에게 지내는 제사” (이희승, 국어대사전, 1976)로 농업을 주로하는 마을에서 거행되는 부락제이다. 이러한 부락제에는 한 해 동안의 마을의 안녕을 빌며 음력 정월에 거행하는 春脯祭와 풍년을 기원하며 음력 칠월에 거행하는 農脯祭가 행해지는데 본도에서는 춘포제만이 정월에 거행되고 있었다.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거행하는 이포제는 주민들이 이주해오기 전 대정읍에 거주할 때부터 지내오던 제의 양식이다. 당시 주 생계활동이 농업이었으므로 토지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생업과 직결되어 있고 부락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시되는 부락 공동의례였다. 그러나 마라도로 이주한 주민들의 경우

이러한 부락제는 포제가 갖고 있던 원래 의미의 제의와는 많은 상반된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제의의 대상이 되는 신이 土地之神으로서 대지를 지배하는 신이었으나 마라도의 경우, 섬을 관장하는 주신이 할망신이며 할망당에 바치는 의례가 별도로 여성들에 의해 주관되어 거행되고 있었으므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의 개념에서 혼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축문에서는 토지신이라고 하나 사실상 하르방신을 위해 드리는 제의가 되고 있다. 둘째는 농경이 점차 침체해지면서 어로 작업에 종사하게 되므로 농사에서의 풍요를 비는 의례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에 직면하면서도 남성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속되어오던 포제가 1975년도부터는 마을 주민 전체의 의사에 의해 止祭되어 오늘날에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 거행되어졌던 포제의 제의 절차를 보면 설달 그믐기에 부락 회의를 열고 해녀회장, 이장 및 향장을 중심으로한 마을의 공식적인 지도자들이 모여 포제를 거행하기 위한 사항을 토의한다. 소모되는 비용의 규모와 비용의 염출 방법, 제의 일정, 제관의 선정 등 제반 문제가 부락 회의에서 결정되고 정월이 되면 제의에 필요한 준비를 실시해 祭費는 해조류(미역, 툇)의 채취에서 얻어지는 수입의 일부에서 마련하며 제의 일정은 노인들이吉日을 따져 결정한다. 제관의 선정도 연로자들이 그 해 운수에 맞고 부정을 타지않은 사람을 선정한다. 屍身을 접하거나 가장에서 해산을 맞은 사람은 포제에의 참석이 금지되므로 우선 이러한 사람은 제관에서 제외된다. 祝辭官과 執事官을 포함해서 제관은 5인으로 구성되는데 일단 제관으로 선정되면 이들은 入祭日(祭日 3日前)에 제의를 주관하는 집에 모여 합숙하면서 3일간을 근신한다. 제일이 가까와지면 뒷동산에 포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로는 돼지 1마리, 수탉 1마리, 생선, 건과(대추, 밤), 쌀밥이 준비되는데 밥 이외에는 모두 날 것을 올린다. 돼지는 통째로 제단에 올리는데 천신에게 드리는 가장 소중한 제물로 여겨지고 있다. 예정된 날 포제단에서

천신을 위해 드리는 祭가 자정에 시작하여 제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끝난다. 특히 축제관은 축문을 낭송하며 천신이 정성스럽게 마련된 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한 해 동안 부락 내의 안녕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을 기원한다. 제의가 끝난 다음 날 제관 집에 전 주민이 모여 그동안 수고한 제관을 위로하며 제물로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제의가 끝난 후에도 신에게 바쳐진 정성이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모든 주민이 행동을 조심하며 제의의 효험을 기원한다.

#### 다. 할망당제

남성들이 주관하는 종교적 의례인 조상 의례나 부락제가 새로운 환경에서 거행되는 동안 원래의 의례 형식과는 달리 변모되거나 혹은 소멸되는데 반하여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거행되는 할망당제는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도태 압력에 시달리면서도 오늘날까지 철저히 지켜지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일제 시대부터 일본 관헌들에 의해, 그리고 해방 후에는 1960년대부터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미신타파 운동으로 행정 당국에 의해 여러차례 僅이 패쇄되었으나 주민들은 파괴된 당을 복구하고 할망신에 대한 의례를 지속해 왔다. 특히 1976년에는 읍사무소 직원과 제주시에 위치한 절인 관음사의 관계자들이 합세하여 불상을 모시고 와서 망동산 언덕에 세워진 할망당을 부수고 그 자리에 조그마한 불당을 건립하여 여기에 불상을 모셔놓아 주민들로 하여금 할망신 대신에 부처님을 믿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망동산 아래 바닷가로 자리를 옮겨 돌담을 둘러쌓아 당을 건립하고 이 곳에 할망신을 모시고 원래의 의례를 거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당을 부수려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배를 타던중 발을 헛디더 바닷속에 떨어져 간신히 목숨을 구하여 돌아갔다고 한다. 또한 당이 파괴되자 밤마다 주민들의 꿈 속에 할망신이 나타나 추워 못살겠다고 호소하므로 잠을 잘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잠수하던 해녀가 질

식사하는 사전과 성멸 벼랑으로 사람이 떨어져 다치는 등 불상사가 잇달아 발생하여 다시 땅을 보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오늘날까지도 주민들은 험난한 도서 환경에서 사고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은 모두 할망신의 은덕에 의한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마라도를 위해 희생당한 할망신을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것을 주민들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 할망신의 유래는 주민들 사이에 전설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라도가 개척되기 오래 전에 가파도에 거주하던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마라도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족과 더불어 마라도로 건너왔다. 이 일가족은 당시 섬에 울창했던 숲에서 나무를 베어가고 또 주변 해안에 풍성한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마라도에 이르렀다. 이 일행중에는 아이를 돌보는 아기씨인 처녀가 끼어 있었다. 이 처녀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갈 곳이 없는 소녀였는데 이씨 집에서 키워져 함께 지내고 있었다. 이 소녀는 목소리가 고와 옥을 굴리는 듯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곤 했었다 한다. 그런데 마라도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기에 앞서 일행은 뱃전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는데 선주와 그 부인이 같은 내용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는 의젓한 백수 노인이 나타나 “그대들이 이 섬을 떠나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무사히 떠나고 싶거든 아이보는 아기씨를 섬에 두고가야 한다. 만약 내 말을 어길 경우에는 모두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내 말을 명심하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 버렸다. 잠에서 깨 부부는 서로 꿈 이야기를 나누고는 불길한 예감에 서로잡혀 서둘러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지껏 채청하던 달씨가 돌연히 변하여 안개가 뒤덮이고 풍향을 헤아릴 수 없는 강한 바람이 불어와 도저히 배를 떠울 수가 없었다. 바람은 점점 거세어지고 파도가 드높아져 자 두 부부는 서로 상의하여 꿈에 노인이 지시한대로 아이보는 처녀를 두고 가기로 결심하였다. 부인은 한 피를 생각해내어 처녀에게 “애야



저 건너 바위 위에 애 기저귀를 널어 두었는데 얼른 가서 걸어 오나라”고 말하였다. 처녀가 부인이 가리킨 장소를 향해 떠나자 선주는 급히 배를 바다에 띄웠다. 배는 믿어지지 않게 순풍을 맞아 섬을 뒤로하고 미끄러져 나갔고 이어서 거칠던 바람도 멎고 안개도 걷히었다. 섬에 남겨진 처녀는 떠나는 배를 향해 손을 흔들며 함께 가자고 소리쳤다. 멀어지는 섬과 처녀를 뒤로하고 배는 무사히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후 3년이 지나 이씨 부부가 다시 섬에 이르러보니 처녀는 죽어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다. 이들은 처녀가 서서 사라지는 배를 향해 함께 가자고 외치던 망동산에 뼈를 묻어주고 무덤 주변에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돌담을 쌓아 주었다.

이 때부터 섬을 찾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죽은 처녀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처녀의 무덤을 찾아 제물을 드리며 섬에서의 일정을 안전하게 돌보아 줄 것을 기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처녀는 점차 섬을 관장하는 신으로 모셔졌고 그 무덤은 오늘날 처녀당 혹은 할망당으로 불리워지고 있다(나씨 노인, 76세 제보).

할망당제는 각 가정 단위로 여성들만이 찾아가 할망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마음으로 소원을 고하며 자애로운 신의 도움을 청한다. 매달 음력 초이렛날은 이 곳 해녀들이 빠짐없이 찾고 있으나 평소에도 꿈이 어지럽거나 집안에 불안한 일이 발생하면 할망당을 찾는다. 당을 찾을 때에는 제물로 쌀밥 한 그릇과 과일, 생선 한마리, 그리고 쌀가루로 빚어 만든 접시 모양의 얇은 떡과 祭酒를 올린다. 제의 절차는 할망당을 두르고 있는 돌담 밑에 제물을 차려놓고 杯를 드리고 앉아서 소원을 말하고 제물의 일부를 조금씩 떼어내어 제주를 따라놓은 잔에 넣은 후 堂 한 구석에 부어놓고 제물을 챙기고 돌아온다.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 중에서 섬에 오래 기거하거나 공사차 오는 인부들은 남자들까지도 이 당을 찾아 제를 드리고 도서 내의 일정을 무사히 마쳐주도록 기원

하고 있다.

### 3. 종교와 적응

마라도의 종교 체계와 관련된 초자연적인 존재들은 모두 주변 세계의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각자의 영역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조정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들이다. 여기에서 신들 사이의 역할 분담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하르방신은 천상계를, 할망신은 지상과 해상계를 그리고 조상신은 각 가정을 관장하며 주민들의 중요한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 즉 천상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를테면 기후의 요인인 한발, 태풍, 그리고 돌풍 등은 하르방신에 의해 조정되고 있으며 도서 내에서나 육상이나 해상에 서의 모든 사고들은 할망신이 처리하고 있고 가정 내에서의 가족원의 안녕을 돌보는 것은 조상신의 일로써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의 변화나 예기치 않은 사건, 그리고 질병과 죽음 등등은 모두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뜻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존재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은 그들의 환경이 맹목적인 자연력에 지배되는게 아니라 교신이 가능한 신들에 의해 지배된다고 여김으로써 자연 환경을 의미의 환경으로 전환해내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해석으로부터 단순한 지식을 갖고 있고 자연환경이 야기하는 재난에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신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므로 자연력의 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의식 자체가 그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데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있다. 더우기 고립된 도서 지역에서 생계를 바다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환경이 제기하는 문제인 한발이나 강풍, 예기치 않게 부는 돌풍은 생계 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위협적인 제 요인에 무방비한 상태로 직면해 있다는 의식은 주민들에게 갈등과 불안 그

리고 공포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종교 체계는 여러가지 위협적인 사건을 대비케하고 심리적 긴장이나 불안을 해소케 함으로써 심리적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적응 기제가 되고 있다.

재난이 가득한 자연력의 통제는 이를 지배하고 있는 신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능하게 된다. 신들의 초자연적인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신들에게 충분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힘을 동원하기 위해서 의례가 거행되고 있다. 의례시 제물은 신들과의 관계를 이루는 상징적인 매체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엄격한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맺어지고 있는 관계이다. 신들은 주민들이 그들에게 대한 경건한 태도와 정성스러운 대접의 결과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주민들이 신들에 대한 정성이나 대접이 소홀해지면 신들은 가차없이 재난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재난이란 신들과의 관계에서 엄격한 관계물을 어긴 주민들 자체의 행위의 결과로 내려지는 소위 신의 징벌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해상에서의 생계 활동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돌풍은 천신이 강림하는 길목인 장군석을 누군가가 올라가 신성을 더럽히므로 신이 노하여 내리는 것이며,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도 주민 상호간의 관계에서나 혹은 주민과 신과의 관계에서 신을 섭섭하게 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난시 신들과의 원만한 관계의 회복이 필요시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의례 절차를 거쳐야한다. 특히 이 곳에서 할망신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실생활에서의 여성의 활동의 중요성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여성들은 각 가정에서 생계를 담당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에 의해서 가족원의 안녕을 유지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 자신은 해저에서 채취 작업의 위험에 항상 직면하게 된다. 작업시 이따금 만나는 큰 물고기의 위협, 잠수시 질식사의 위험 등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이나 긴장뿐만 아니라 채취 사회에서 여성들간에 은연중 생기는 경쟁심으로 야기되는 갈등이 시달리게 되므로 이러한 여성들 사이의 갈등이나

심리적 불안 혹은 긴장을 풀어주는 종교의 형태가 필요시된다. 여기에서 할망당은 이러한 여성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신봉되고 있다. 여신이 모두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이곳 여성들도 가족원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게 하며 여성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할망당신에 얽힌 신화의 내용이다. 여성들이 당을 찾을 때는 가정에 불상사가 발생하였거나 불길한 꿈을 자주 꾸게 되어 심리적 불안이 고조되는 때이다. 이렇게 좋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여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의 결과라고 여기고 신의 노여움을 풀고 신의 도움을 구하고자 당을 찾는데 이때에는 정성스러운 제물로 신의 환심을 되찾고자한다. 그러므로 할망당제에서 지내는 간단한 의례는 여성 개개인이 처한 심리적 갈등이나 불안을 해소케 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여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심리적 힘을 얻는 동기가 될뿐만 아니라 여성들과 더불어 전 주민들에게 공동의 신념을 갖게 하므로 주민들 사이에 동질감을 형성하고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는 사회적 장치가 되고있다. 신들은 이 곳의 날씨처럼 변덕스러우며 저마다 주관하는 영역 내에서 인간의 행위를 주시하며 인간을 보살피고 있으나 그 대접에 따라 쉽게 변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따라서 이 곳에서 신을 섬기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거나 화를 대비하는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 VII. 결 론

고립된 소규모의 도서인 마라도는 험난한 지형, 바람과 한발 등 기후의 제약 그리고 빈약한 자원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인간의 서식지로서 많은 구속력을 지닌 곳이다. 이용 가능한 자원은 토지자원과 수산 자원으로 구분되는데 마라도가 해저의 화산 작용에 의해 형성된 관계로

토질이 박하여 낮은 생산성의 토지자원은 주민들의 생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수산자원이용에 있어서도 포구 시설을 불가능케 하는 험난한 지형적 장애는 인근해의 풍부한 어족자원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려고 다각도로 생계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희소 자원 이용의 전략으로서는 토지자원에 의존하는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해저자원을 이용하는 어업과 잠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도의 환경적 특성에 의해서 여자들이 전담하는 잠수업 이외의 생계 활동은 생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잠수 작업이 유리한 생계 활동이 되고있는 데에는 환경의 혜택과도 관련이 있다. 섬의 형성시 용암이 굳어 형성된 현무암석이 해저를 뒤덮고 있으므로 섬 주변의 공동 어장의 구역은 채류, 연체류, 해조류, 어족 등의 최적 서식지를 이루고 있다. 이 곳 공동 어장 내의 해산물을 해수의 한냉 자극에 적응력이 강한 여성들이 전담하여 채취하고 있으므로 생계 활동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 어느 지역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야외에서의 생계 활동을 여성이 전담하게 되므로 남녀간의 성별 분업 구조도 다른 지역과 상반된 양상을 띄게 된다. 여성들이 바다에서 채취업에 종사하는 동안 각 가정에 머물게 하는 남성들은 아이를 돌보는 등 가사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토지자원에서의 생산성의 저하와 지형적 특성으로 어로 작업이 부진하게 된 결과, 공동 어장 내의 해저자원에 전 주민이 의존하게 되므로 주민들은 자원고갈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원의 한계에 적응하려는 시도로 자원에 의존하는 인구를 줄이려는 전략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까다로운 전입 절차, 타지로 혼인하는 여성들의 자원이용권 박탈 등에 관련된 자체의 규약은 외부 사회의 법 체계에 우선하여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와 더불어 일 개인의 노동력에 의한 생산성의 한계는 대가족의 부양을 어렵게 하므로 가족원을 분산하려는 전략으로 혼인시 분가가 장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 핵

가족이 지배적인 가족 유형이 된다. 그래서 핵가족은 확대가족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잉여 노동력을 최소 생계 단위로 분산시키는 제도로서 생계 활동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노동 단위가 되고 있다. 또한 초기 이주민의 누이바꿈의 혼인을 통해 주민들이 인척 관계로 얽히게 되므로 혈족과 인척의 구분이 세심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곳의 친족 조직은 주민들 사이에 부락의 혼을 강요함으로써 도서 내의 거주 인구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장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 내의 인구를 하나로 결속케 함으로써 자연 중심의 공동체 조직을 가능하게 한다.

자원의 한계와 한정된 자원의 이용 과정은 마라도의 사회적 형태를 여성중심적 사회로 만들고 있다. 도서 환경의 특성에 의해서 남성들이 일터를 상실하고 있어서 생계 문제 해결에 별다른 중요한 역할을 행하지 못하는데 반해 여성들은 채취 작업에서의 고조되는 여성들 사이의 경쟁력으로 억척스러운 정도의 작업 의욕을 갖고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각 가정의 성인 여성들은 사실상의 가장으로서 가정 내의 모든 일에 있어서의 의사 결정을 주도해나간다.

가정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은 마을의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동회가 남성들 사이의 이해 관계로 얽혀 의사 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시행하는데 협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여성들의 모임인 해녀회는 전 회원의 의사 결정이 용이하여 마을의 일을 주도하여 수행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동조직이 되고 있다. 부계친족 중심으로 남성이 주동되어 거행하는 기제사도 부락민 전체가 참여하여 일종의 공동의례로 변모되었고 마을의 공동의례인 포제도 근래에 이르러 중단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여성 중심의 신앙 체계인 본향당 의례는 외부 사회에서 끊임없는 도태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할망당은 주민들의 신앙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곳에 좌정된 할망신은 마을의 모든 일을 관장하여 처리하며 주민을 보호하는 자애로운 신으로서 가정의

여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라도의 문화적 특성인 핵가족의 유형, 오늘날까지 토지와 자원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 조직, 그리고 생계 활동에서 보이는 여성중심사회의 특성은 모두 환경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주민들의 적응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고립되어 있고 희소한 자원을 지닌 마라도의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이 제시하는 잇점을 이용하는 과정이 이주된 문화를 새로운 도서 환경에의 적응에 용이한 형태로 변화하게 하므로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게 됨을 주목하게 된다.

## 參 考 文 獻

- 康大元            1973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 고려대학교 民族文化研究所  
                         1982 韓國民俗大觀 제 3 권 (民間信仰), 고려대학교 출판부.
- 高翔龍            1967 한국의 入漁慣行權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金榮敦            1970 “海女の 收益侵害,” 濟州大學 論文集 제 7 집, 제주대학, 9-29.
- \_\_\_\_\_        1971 “馬羅島의 意志,” 南濟州郡誌 제 15 집, 南濟州郡, 91-99.
- 內務部            1983 島嶼要覽.
- 朴光淳            1979 “珍島の 水産業과 水産儀禮,” 湖南文化研究, 전남대학교 湖南文化研究所, 163-194.
- 뿌리깊은 나무 1983 한국의 발견, 제주도편, 뿌리깊은 나무社.
- 李符永, 金昌銑 1965 “韓國農村(加波島, 馬羅島)에서의 主要 精神疾患

- 頻度調査,” 明柱完 박사 還曆紀念論文集, 대한정신의학회, 68-78.
- 張保雄 1981 韓國의 民家研究, 보진제출판사.
- 全京秀 1977 “珍島 下沙美의 儀禮生活,” 人類學論集 제 3 집, 서울대학교 人類學硏究會, 35-74.
-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4 “加波島 學術調査,” 國文學報 제 6 집, 77-183.
- 濟州大學 學徒護國團 1978 海女生活調査報告書.
- 趙惠貞 1982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상북편,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42-167.
- 崔在錫 1979 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 韓相福 1973 “西海島嶼의 漁民生活,” 漁民, 제 11 권 제 8-9 호, 한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19-127.
- \_\_\_\_\_ 1974 “環境과 文化: 生態人類學의 概念, 方法 및 問題,” 環境論叢 제 1 권 제 1 호, 서울대 環境대학원, 267-287.
- \_\_\_\_\_ 1975 “韓國의 水産物 流通過程에 대한 經濟人類學의 硏究,” 人類學 論集,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141-164.
- \_\_\_\_\_ 1976 “農村과 漁村의 生態의 比較,” 한국문화인류학회 제 8 집, 87-90.
- 韓相福, 李起旭 1980 “西海岸 飛禽, 都草, 牛耳群島의 人類學의 調査報告,” 신안군 牛耳島 및 인근도서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한국자연보존협회, 159-181.
- \_\_\_\_\_ 1981 “古群山群島의 人類學의 調査報告,” 고군산군도 종합학술조사보고서, 한국자연보존협회, 167-199.
- \_\_\_\_\_ 1981 “울릉도, 獨島의 人類學의 調査報告,” 울릉도 · 독



도 종합학술조사보고서, 한국자연보존협회, 247-291.

Cohen, Yehudi A. ed.

1968 *Man in Adaptation: The Culture Present*.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1971 *Man in Adaptati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Chicago: New York: Aldine Atherton.

Chun, Kyung-Soo

1984 *Reciprocity and Korean Society: An Ethnography of Hasami*.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Danielsson, Bengt

1956 *Love in the South Seas*. London: Allen and Unwin.

Ellen, Roy

1982 *Environment, Subsistence and System: The Ecology of Small-Scale Social Formation*. Cambridge Univ. Press.

Firth, Raymond

1936 *We, the Tikopia*. London: Allen and Unwin.

Forde, C. Daryll

1977 *Habitat, Economy and Society: A Geographical Introduction to Ethnology*. London: Methuen & Co. Ltd.

Fosherb, F.R. ed.

1970 *Man's Place in the Island Ecosystem*. Bishop Museum Press.

Han, Sang-Bok

1977 *Korean Fisherman: Ecological Adaptation in three Communities*. Seoul National Univ. Press.

Hardesty, Donald L.

1977 *Ecological Anthropology*. John Wiley & Sons.

Harding, Thomas G. and Wallace Ben J. ed.

1970 *Cultures of the Pacific*. New York: The Free Press.

Howard, Alan ed.

1971 *Polynesia: Reading on a Culture Area*. Chandler Publishing Company.

Moran, Emilis F.

1979 *Human Adaptability: An Introduction to Ecological Anthropology*. Duxbury Press.

Netting, Robert McC.

1968 *Hill Farmers of Nigeria*. Seattle: Washington Univ. Press.

1977 *Cultural Ecology, Menlo Park*. California: Cummings Pub. Company.

Rappaport, Roy A.

1968 *Pigs for the Ancestors: Ritual in the Ecology of a New-Guinea People*. New Haven: Yale Univ. Press.

Sahlins, Marshall

1957 "Land Use and the Extended Family in Maola, Fiji". *American Anthropologist*, Vol.59, 449-62.

Steward, Julian H.

1955 *Theory of Culture Change: The Methodology of Multilinear Evolution*. Chicago: Univ. of Illinois Press.

1968 "Culture Ecology",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4: 337-344.

Vayda A.P. and Roy A. Rappaport

- 1963 "*Island Cultures*", in F.R. Fosberg, ed. (1970) pp. 133-143.
- 1976 "Ecology, Cultural and Noncultural", in Peter Richerson and J. McEvoy eds. *Human Ecology*. North Scituate, Mass.: Duxbury Press.

## 〈부 록〉

## 馬羅島 鄉約

## 第一章 總 綱

## 第一節 總 則

第一條 本 鄉約은 馬羅島의 鄉約이라 칭한다.

第二條 本 鄉約은 地方의 건설과 그 組織 및 질서를 유지하고 島民의 福利 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二節 內務 및 管轄

第三條 本島에는 班長 1人和 總務 1人 外務 1人을 둔다.

第四條 班長의 諮問機關으로는 內務 外務 및 總務를 둔다.

## 第三節 任員選出 및 業務分掌

第五條 班長은 諮問機關의 推薦을 얻어 本 鄉會의 多數決을 거친 者로서 選任한다.

第六條 內務 및 外務와 總務는 鄉會의 多數決로써 選出한다.

第七條 班長은 鄉員을 統率하고 모든 行政的 事務를 擔當한다.

第八節 總務는 班長을 補佐하며 班長이 有故時는 이를 代理하며 會計 帳簿 및 文書整理 和布 監督을 겸한다.

第九條 外務는 班長의 對外的인 諮問에 應하여 地方의 發展向上을 위한 對外活動 및 外來人의 接待를 맡는다.

## 第四節 任期 및 任免

第十一條 班員 및 任員의 任期는 각각 1年으로 한다.

第十二條 班長 및 役員의 在任中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事然이 있을

時는,

1. 在任期間이 六個月 以內이면 再選任한다.
2. 在任期間이 六個月 以上이면 班長職을 總務가 代理한다.

#### 第五節 報 酬

第十三條 班長 및 役員은 有報酬職으로 한다.

第十四條 報酬額은 年 班長 2,000 원, 他 役員은 2,000 원으로 하되 他 役員은 이를 分給한다.

### 第二章 海産物

#### 第一節 海産物の 禁, 解禁

第十五條 和布(미역)는 每年 冬至(陽 12 월~1 월)로 禁採한다.

第十六條 김, 툇은 每年 陽 11 월 30 일로 許採한다.

第十七條 和布(미역)는 陽 3 월 15 일로 許採키로 하되 形便에 따라 役員會에서 그 日程을 變更할 수 있다.

第十八條 和布 許採時에 大事가 本鄉里에 有時 1 日을 延期할 수 있으며 役員會에서는 그 日程을 變更할 수 있다.

第十九條 김은 陽 12 월 下旬으로 許採키로 하고 役員會에서 決定할 수 있다.

#### 第2節 和布 및 김, 툇 許採에 對한 監視

第二十條:

第二十一條 모든 海産物の 監視는 班長의 指示에 依하여 役員이 監視한다.

第二十二條 監視成績이 不良時 鄉會의 決議에 依하여 그 報酬를 削減할 수 있다.

### 第三節 入漁 資格

- 第二十三條 本島의 居民은 누구나 入漁權을 가진다.
- 第二十四條 本島에는 一年 以上 居住한 者라야 和布 採取權을 가지며 負役動員 및 公共施設에 地方負擔을 履行치 않은 者는 入漁權이 없다.
- 第二十五條 本島에 居住하는 公務員은 自然히 入漁權이 許容된다.
- 第二十六條 本島의 初入漁權을 가진 者는 現物(和布) 100斤을 내기로 한다.
- 第二十七條 本島 住民으로서 他地方으로 轉出된 者는 如何한 일이 있어도 入漁權이 없다.
- 第二十八條 本島 住民으로서 和布 採取後 出他하여 本島에 居住하지 않는 者는 入漁權이 없다. 但 特別한 事由(잠수작업, 어업 작업 대기소)로 因할 時는 役員會에서 可否를 決定한다.
- 第二十九條 本島의 入漁權者의 名簿는 役員會議에서 결정하되 年末 鄉會에서 이를 발표한다.
- 第三十條 本島의 入漁權에서 代理權은 不容納된다.
- 第三十一條 和布 無採取能力者는 속칭 “골채어음”으로 부터 “장시덕”까지 海岸 採取할 수 있다.
- 第三十二條 和布 採取 現物은 無採取能力者끼리 公平히 分配한다. 성명(地名)은 年例的으로 한다.

## 第三章 賦 役

### 第一節 動 員

- 第三十三條 本島의 公共施設과 發展事業 기타 公共福利를 위한 動員은 島民 各自의 業務와 責任을 가진다.
- 第三十四條 賦役 免除者는 70才 以上の 無能力者로 한다.

## 第二節 時 祭

- 第三十五條 本島의 年時祭는 一回로 한다.
- 第三十六條 年時祭의 祭冠은 本島 居住者로 만 20歲 以上인 者를 役員會에서 選任한다.
- 第三十七條 入廳은 三日前부터 修道함을 原則으로 하고 初獻官宅 自體의 飲食 提共을 禁한다. 入廳後 如何한 일이 있어도 退廳할 수 없다.

## 第四章 冠婚喪祭

### 第一節 婚 禮

- 第三十八條 婚禮時 納幣는 一切 禁한다.
- 第三十九條 新婦의 禮物은 寢具 2組, 鏡臺 1個, 硯 1個, 방석 5個, 벼 3個로 한다.
- 第四十條 新郎 親近者로서 新婦에게 膳賜品 衣服은 三着 以內로 하여 其以外에는 現金으로 한다.
- 第四十一條 婚禮後 오락, 향연은 一切 禁한다.

### 第二節 葬 禮

- 第四十二條 服喪은 喪主의 親戚을 喪主의 親戚을 喪主의 뜻에 맡기고 그 外에는 一切 禁한다.
- 第四十三條 葬禮時 花壇은 一切 禁한다.
- 第四十四條 호상時 弔意들은 곡물 및 現金에 限하며 以外는 一切 禁한다.
- 第四十五條 대소기는 日沒後 設床하며 祭祀를 奉하되 弔意客은 一切 禁한다.
- 第四十六條 祭祀時 祭祀밥 分配는 一切 禁한다.
- 第四十七條 選甲잔치는 一切 禁한다.

第四十八條 第四章의 團束權은 4H Club 과 海女會에서 擔當한다.

### 第五章 牛馬場

第四十八條 本島의 共同 牛馬場은 住民各者가 保護한다.

第五十條 共同 牛馬場에 加立使用하려는 者는 事前에 役員會議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五十一條 共同 牛馬場의 울타리 修築은 島民 全體가 責任 修築한다.

### 第六章 會議

第五十二條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定期總會는 年 2 회로 하며 一次는 陰六月 下旬으로 하고 二次는 陰 12 月 下旬으로 定하고 班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五十三條 臨時總會는 수시로 班長이 必要할 時 班長이 役員의 同意를 얻어 이를 召集한다.

第五十四條 役員會議는 班長이 必要할 時 이를 召集한다.

第五十五條 班長은 各種 會議의 議長이 된다.

### 第七章 財政

第五十六條 班財政의 經營費는 “선멸”(지명) 採取權者의 入漁料, 一般 入漁料, 其他의 收入으로 한다.

第五十七條 本島의 諸收入 支出은 役員의 同意를 얻어 署名 捺印한 後 班長이 執行한다.

第五十八條 本島의 公共物 및 現金은 班長이 保管해야 한다.

#### 第二節 罰則



- 第五十九條 和布 入漁 密採取者는 水鏡퇴박 및 現物 압수는 勿論 500 원을 적발후 10 日內에 賠償한다.
- 第六十條 연안지에서 和布를 密採한 者는 道具 및 現物 押收는 勿論 罰金 500 원을 적발후 10 日 以內에 賠償한다. 但, 2 回 以上의 密採者는 罰金 2 倍를 賠償한다.
- 第六十一條 入漁資格이 없는 者가 入漁하였을 때는 現品 및 道具를 沒收한다.
- 第六十二條 김, 돛 密採者는 60 條에 準한다.
- 第六十三條 59 條, 60 條의 規程에 違背된 老少犯罪者는 世帶主를 犯罪者로 한다.

### 第三節 動員 缺役者의 罰

- 第六十四條 賦役動員에 班員이 認定하는 大事 및 以外의 缺役者는 100 원으로 罰金を 賠償하고 賠償金은 班運營費에 充當한다.

## 第八章 附 則

- 第一條 天災地變으로 因하여 無依託者의 死亡의 葬禮費는 該當 部落民 金品으로서 相扶相助의 義務를 진다.
- 第二條 役員의 報酬는 換率變更에 따라 增減할 수 있다.
- 第三條 本鄉約의 開閉는 定期總會에서 할 수 있으나 邑長 및 支署長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第四條 本鄉約의 實行 與否 및 財政一切의 監督은 顧問 3 人과 監査員 3 人을 둘 수 있다.
- 第五條 本鄉約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서기 1965 年 2 月 日

※ 본 항약은 고상룡 교수(성균관대)가 1965년 현지조사에서 입수한 것을 재 수록한 것이며, 누락된 조항은 인용원전에 따른 결과임.